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금주의 기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금주의 말씀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4월 4일 (토) 제 1528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PCUSA, 동성애 수용 시대적 변화에 편승!

미 언론, PCUSA 동성결혼 인정하는 헌법 개정안 통과 이후 논란과 파장 보도

1970년부터 일기 시작한 주류교단의 마이너스 성향이라는 흐름에, PCUSA 역시 혹독한 시련을 맞아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PCUSA 총회 결정은 후 폭풍이 어떻게 밀어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미 언론들이 도배하듯이 동 교단 총회 결정 논란을 보도하고 있다.

먼저 PCUSA 웹사이트를 통해, 이번 결정의 배경을 알아보자.

"성"에 대한 교단적 논의는 1978년부터 시작된다. 동 교단은 "동성애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선포했다.

동성애는 인류 역사와 함께 이어진, 모두가 입을 올리기를 꺼리는 공공연한 '타부' 중 하나다. 동성애 문제가 사회, 정치적 이슈로 자리 잡은 것은 1945년 이후다.

를 배경으로 한 '게이' 문제가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나타난 것이다.

1953년 6.25전쟁 끝 해에 취임한 아이젠하워는 대통령 이므로 남성동성애자와 여성동성애자의 연방정부 근무 금지 명령을 발표한다.

동성애 운동이 정치적 이슈로 부상한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다. 흑인 공민권 운동과 함께 부각된 소수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시작된다.



튼 내 그리니치(Greenwich)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리니치 사건은 동성애 단체들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전환점이 된다. 미국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사회 문화 현상이 그러하듯, 뉴욕은 미국을 대표하는 만형에 해당한다.

그리니치 습격사건 이전에 미국 전역에 있던 동성애 단체 회원은 통틀어 수천 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1973년이 되자 동성애 단체는

무려 800여개로 늘어난다. 회원도 십만 명 단위에 육박한다. 보수주의 대통령의 상징인 로널드 레이건의 임기 말이던 1987년, 60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워싱턴DC에서 집회를 벌인다.

따라서 미국 사회의 주요한 쟁점으로 동성애 문제가 불거지자, PCUSA는 주류교단을 대변하듯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동성애는 막힐 것이 없는 대세로 자리 잡게 된다. 보수주의자들의 완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운동은 글로벌리즘의 선두에 선, 지극히 미국적인 첨단 문화로 자리 잡는다.

(3면으로 계속)

IS, 다음세대 테러위해 어린이들 끌어들이다!

허핑턴포스트, 매사추세츠대학 안보학 미아 브룸 교수 기고문 보도

지난 3월 10일 IS는 매체 알-푸르칸을 통해 경악스러운 영상을 공개했다. 이스라엘 모사드의 첩자라며 팔레스타인 포로를 어린 소년이 총으로 쏘 죽이는 장면을 발표한 것이다.

IS 동영상에서 점점 더 어린이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무서울 정도로 우려가 되는 문제다. IS가 벌써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어린 칼리프 전사들'을 육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발적 가입 보이려 점진적 과정 거쳐 소아성애자 전술 도용, 참수형 영상 관람부터 테러 견습기간 무시 곧바로 일선 투입

이런 영상은 두 가지 경향을 보여준다. 우선 IS 일선에서 어린 아이들이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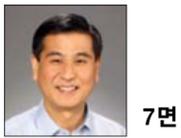
두 번째 경향은 다세대와 친척 관계를 이용한 극단주의 폭력 활동이다. 어린이 혼자 정치에 대한 진정한 이해나 진정한 극단주의자로 변할 가능성은 적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보고 배운 대로 어린이들이 행동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다. 라카 훈련소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한다.

(3면으로 계속)



목희재에게도 '친구'가 필요하다!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김다니엘 (중동 전문가)



인터뷰 전현미 선생

KIM Mission - 제 47/48기 미션 퍼스펙티브스 키르기스스탄 세미나. (세계선교를 보는 성경적Biblical, 역사적Historical, 문화적Cultural, 전략적 Strategic 관점) KIM Ministry Mentors list and KIM Mission details.



시론

극단주의(Extremism)를 경계하라



최동진 목사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현대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중의 하나는 단연 '소통'(Communication)이다.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문화 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소통하는 것이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에 전염병처럼 만연한 극단주의(Extremism)를 경계해야 한다. '극단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인류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보편적 상식이나 사상, 가치체계 등으로부터 동떨어진 사고방식이나 사상, 신념 등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얼마 전, 마크 리퍼트(Mark William Lippert) 주한 미 대사가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가 주최한 조찬 강연에서 '우리마당'이라는 진보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중씨에 의해 25cm 식도로 오른쪽 안면11cm 상해와 원팔관통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기중씨의 피습사건은 단순한 상해사건이 아니라 당시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항의차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김기중씨는 2010년 7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특별강연에 나선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 당시 주한 일본대사에게 시멘트 덩어리를 던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한 적도 있었다. 자기 주장이나 사상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적 혹은 물리적 강해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는 극단주의의 부정적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원래 극단주의적 행태는 정치, 종교적인 측면에서 강하게 어필해왔다. 과거 이슬람세력을 정복하기 위해 발발했던 십자군 운동이라든가, 그 뿌리의 열매로 나타난 IS(Islam State) 괴물 등은 극단주의의 전형들이다. 독일의 나찌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역시 근, 현대사에 나타난 대표적인 극단주의의 정치형태들이다.

극단주의는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존재해왔다. 대표적인 극우적 형태로 나타난 종교집단은 율법중심적인 바리새파이며, 극좌적인 형태로 나타난 집단은 사두개파와 헤롯당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극단주의들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교훈들로, 누룩과 같이 사악한 것이었기에 주님은 저들을 경계하라고 주의하셨다(마16:6, 12; 막8:11). 바리새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장로들의 유전을 더하여 정죄와 판단을 일삼았으며, 사두개파들은 하나님의 영이나 천사들, 육체 부활 등을 신앙에서 배제해버렸고, 헤롯당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철저하게 로마식민지의 정치적 집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오늘날 신학적인 극단주의 역시 경계의 대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칼 바르트의 신 정통주의(Neo-Orthodoxism)에 뿌리를 둔 로버트 펄크와 존 도미니크 크로산에 의해 1985년에 시작된 "역사적 예수운동"(Historical Jesus Movement), 포스트모더니즘에 뿌리를 둔 존 희의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 혼합주의(Syncretism)형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원의 유일성 등을 철저하게 테러하고 있다. 또 다른 극단인 극우의 경우는 어떠한가. 신비적 은사주의 운동인 Toronto Blessing, Vineyard Movement, IHOP 등의 제 3의 물결을 비롯하여 적극적 사고방식(Positivism), 긍정의 힘을 통한 기복적 성공지상주의(Successism) 등은 복음을 위장한 다른 복음(another gospel)의 전형일 뿐이다.

특히 양극단은 주관주의적(Subjectivism)이라는 측면에서 한 배를 타고 있음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한 쪽은 이성과 과학주의적 합리성에 의존하여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성을 유린하고 있고, 다른 한 쪽은 개인의 신비적 경험이나 환상 등에 의존하여 성령의 인격성을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기능주의, 도구주의로 전락시키는 불경을 범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총회나 노회, 교회 안에서도 극단주의적 행태가 복음주의적 삶을 천박하게 유린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세속화를 가속화 하고 있음을 애통해 한다.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아디아포라'(adiaphora)를 자신의 이익과 명예만을 위해 강제하거나(롬14장 참고), 타인을 배제하기 위해 인격적 살해는 물론 피차 고소하며, 심지어 사회법정으로 나아가는 일이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일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개탄한다.

진정한 복음적 소통은 무엇인가? 이것은 양극단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리 놓는 일(Making Bridge)이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려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서 화해제물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과 세상을 다리 놓으시되 온유와 겸손으로 하셨다. 우리의 신앙과 신학적 적용에 있어서도 극단주의를 철저히 경계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자기 포기를 선언하며 주를 닮아 온유와 겸손으로 성육화 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복음적 소통(Gospel Communication)을 이루게 될 것이다.

목회자에게도 "친구"가 필요하다!

리더십저널, "과도한 인간관계, 과소한 친구" 목회자의 고독 탈출 조언

이민교회를 맡아 사역을 하는 한인 목회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목회자의 모임에 갔었다. 연례행사로 모이는 모임이었다. 오랜 간 만에 만나서 보고 싶은 얼굴들이어서 매우 반갑고 좋았다. 서로 간의 안부를 물으며 형식적인 대화로 반갑게 인사를 하지만, 서먹 서먹함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일년에 한번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만나서 회의만 하고 헤어지기만을 했기에 안다고 하지만 서로의 깊은 속을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다. 의제에 따라 회의를 한 후에 각자의 목회적 행편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 됐다. 그러저럭 자기소개와 함께 간략한 목회 상황 설명을 하면서 조금씩 자신들의 사역 행편을 나누었다. 그러던 중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자신은 정말로 외롭다고 토로했다. 어느 누구와도 마음을 열고 나눌 수 없어서 외롭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기 저기서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아간다고 웅성거렸다. 목회자의 외로움! 과연 그것 어떤 외로움일까? 성도들에 둘러싸여있는 가운데 외로움이란 군중 속에 외로움이 아닐까 싶다. 과연 이 외로움을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까? 서로 운동을 해봐라, 취미를 가져봐라, 사모와 적극적으로 목회가 아닌 이벤트를 만들어 보라 등등 여러 가지 조언이 있었다. 어떤 목회자는 너무 목회의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인 장애까지 와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도 했다. 그 가운데 어떤 목회자는 견디다 못해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신청했다고 토로했다.

과연 목회자의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성도들은 이런 목회자의 외로움을 심각하게 생각이나 할까? 이런 저런 생각이 드는 회의였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과연 목회자들은 얼마나 사모하며 경험하고 있을까?"

공동체 안에서의 친교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목사들이 정작 자신들은 그렇지 못하니 참 아이러니다. 우리 목사들은 밤이고 낮이고 전화로 대화하고 모임을 갖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내고 있다. 하지만 그토록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터놓고 지낼 친구는 별로 없는 게 현실이다. 한마디로, '과도한 인간관계, 과소한 친구'라 말할 수 있겠다.

목사들은 대개 자신이 고립되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반대로, 과도한 인간관계 속에서 시달리다가 모처럼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지면 혼자만의 시간에 대한 욕구를 더욱 느끼게 된다. 그러는 만큼 친구들은 그들에게서 점점 멀어져 간다.

마크 브라우어(Mark Brouwer)목사는 일리노이 주 에버그린 파크 야곱의 우물 교회 공동체(Jacob's Well Church Community)에서 영적 리더로, 또 목회자들을 위한 리더십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브라우어 목사는 자신의 목회 경험을 토대로 목회자들에게 잘 안 풀리는 외로움과 고립의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The Friendless Pastor: How to address our perennial problem).

나는 거의 20년 동안 목사로서 사역해왔는데, 5년 동안은 회복을 돕는 상담 목사로서 일했고, 최근 5년 동안은 3개 주에서 목사들을 위한 코칭 그룹을 이끌 어왔다. 나를 포함한 목사들은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고립된다는 것에 굉장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 내 경우에는 극도의 피로

를 느끼고 에너지를 가져다 줄 수 있다.

2. 고립된 목사들은 불안과 스트레스에 민감하다. 어떤 목사의 인간관계가 오로지 교인들과의 관계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갈등과 걱정거리가 발생했을 때, 그 목

1. 우리는 인간관계에 대한 우리의 필요가 교인들을 통해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 잘못 생각한다.

5. 고립된 목사들은 어리석은 짓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목사들은 작은 일에 과민반응하거나 철저한 조사도 없이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때때로 친구들은 이런 질문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너 정말로

'교인들과 진정한 관계 조성' '공동체 인정' 어려워 성경읽기, 기도, 묵상, 침묵은 되려 사람들과 멀게 해

와 약물 중독으로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까지 내가 얼마나 고립돼 있었는지 깨닫지 못했다. 나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했지만, 정직하고 투명한 마음으로 대하지는 못했다. 때때로 우리에게 는 교인들과 나눌 수 없는 얘기가 있다. 나는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교회 밖에서조차 진정한 친구들이 없었고, 그래서 나는 누구와도 나의 고민을 나눌 수 없는 채로 있었다. 내게는 숨김없이 속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필요 했다.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야?"
이러한 위험에 빠져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안 그렇게 말해왔으니까! 나는 우리 교회의 남자 교인들과 친구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해 왔다.
(9면으로 계속)

3. 고립된 목사들은 낙심하기 쉽다. 좌절하고 낙심하면서도 그걸 말할 기회가 없으면, 상황 파악을 못하게 된다. 교인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은 때로 현명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냥 가슴에 묻어 두게 된다.

4. 고립된 목사들은 유혹에 취약하다. 고립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어 무언가에 탐닉하게 만들고 약한 습관에 빠져 들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친구들은 목사에게 책임감을 느

[알림] 본지 정기휴간에 따라 4월 11일자 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서리: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2015년 봄학기 박사과정 특강안내

- ▶ 4월 특강 (April 20-24, 2015)
CC 843 Current Issues in Counseling and Psychology
Dr. Jong Cheon Lee
- ▶ 6월 특강 (June 9-11, 2015)
CM 827 Church Music and Literature
Dr. Dae Gweon Kim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 in Music 음악학 BA in Theology 신학, 기독교교육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 in Music 음악학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 음악학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c@midwest.edu

PCUSA, 동성애 수용 시대적 변화에 편승!

(1면에서 계속)

21세기 초는 "커밍아웃"으로 불리는 동성애 고백이 과거의 유물로 전락한 시기다. 색다른거나 차별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존재로서의 동성애가 아니다. 흔히 볼 수 있고, 문화의 일부로 일상 속에 정착했다. 죄를 지은 것처럼 고백하는 커밍아웃은 구시대의 전설이 됐다.

따라서 미국 사회의 쟁점으로 자리잡은 동성애 문제는 여지없이 주류교단을 강타해, 동성애자들을 "소수의 성적 정체성을 가진 약자"로 느닷없이 격상돼, 일체의 차별이나 혐오 범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특혜(?)를 오히려 받게 된다.

바로 이때, 미 주류교단의 장자적인 '미성공회'가 그리고 진보적 노선으로 유명한 '그리스도연합교회' 등이 성경의 권위가 아닌 시대의 흐름에 합류하게 된다. 한마디로 동성애자들을 수용했지만 해당 교회는 분열과 갈등의 암흑 역사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주류교단은 개인구원과 복음전파보다는 사회약자 보호 등 사회정의의 강조하는 신앙노선을 주로 취해왔다는 역사적 배경도 작용한다.

미 베일러 대학의 2005년 조사에 따르면 '성경이 문자 그대로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47.8%, 흑인기독교인은 40.6%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주류기독교인은 11%만 '그렇다'고 응답했고 주류기독교인 22%는 '성경은 고대 역사와 전설을 담은 책'이라고 답했다.

주류기독교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은 세상일에 특별히 관여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으며 자연법칙을 움직이는 우주의 힘인 '멀리 있는 분'(Distant God)으로 보고 있다. 반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개인의 일상 및 세계의 모든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사람이 신실하지 않을 때, 화를 내고 벌을 주시는 '권위의 하나님'(Authoritarian God)으로 보고 있다

고 조사는 밝혔다.

주류기독교인들의 이런 신앙배경을 이해하면 이들에게는 성경에서 금하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는 동성애자가 교회 목사나 장로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성경이 동성애를 금한다고 그대로 지키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PCUSA의 이번 결정은 미국문화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미국장로교가 거대한 문화적 변화에 맞추고

이번 헌법 개정안은 6월 21일에 발효된다. 그러나 이 문제가 총회에서 논의되면서부터 이미 교단을 탈퇴한 교회들도 있고(EPC, ECO), 교단 내에서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노회나 목회자들을 모아 네트워크(www.layman.org)를 결성하는 움직임이 있어왔다[관련기사 9면].

그러나 한 가지 조항이 그나마 PCUSA 산하 성경의 권위를 따르는 목회자에게 위로(?)가 된다. 바로 동성결혼이 합법적인 시민 관할 지역들에서 목사가 동성결혼을 인도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목사의 재량에 맡기기로 동의한 점이다. 다시 말해서, 지역 교회의 당회와 담임목사에게 허락한 재량과 권한에 따라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밝히는 소극적인 전략에서, 모든 한인교회들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한인노회로까지 확대시켜, 복음주의 공동체와 연대해 PCUSA의 갱신을 위해 싸워야 하는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한다고까지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요 언론들은 미국장로교의 결정을 보도하며, 이번 결정이 회원교회와 교인들의 교단탈퇴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30년간 동성애를 놓고 고민해 온 미국장로교가 마침내 결혼의 정의를 바꾸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180만 명의 교인들이 소속된 미국 최대의 장로교단인 PCUSA는 지난 몇 년 동안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교회와 개인들이 교단을 떠났으며, 동성애자 임직을 허용한 2011년부터 시작해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물결은 이번 결정으로 더욱 확실해졌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결혼에 대한 정의를 바꾼 이번 결정이 주류교단 복음진영의 분열을 지속화시킬 것으로 보았다. 미국장로교 동성애 논란 속에 1992년 이래 37%의 교인이 교단을 떠났고, 교단을 떠난 대부분이 EPC와 ECO로 갔으며 이번 결정이 교단탈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AP는 미국장로교가 2011년 게이 안수를 허락한 후, 2013년 428개 교회가 미국장로교를 떠났다고 보도했다.

미국사회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의 무오성을 믿고 복음전파에 힘쓰는 복음주의적 성향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세속적 성향이 동시에 커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있다고 진단한다. 동성애를 인정 수용하는 시대적 변화에 교회가 편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PCUSA는 "포용과 사랑"이라는 기치로, 지난 219차 총회에서부터 목사, 장로, 집사가 되려면 '남자와 여자 간 결합인 결혼을 했거나 독신일 경우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교단헌법 규정을 삭제하면서, 동성결혼 지지로 교단의 입장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아 이번 디트로이트 221차 총회에서 드디어 헌법 규례서(book of Order) 개정안 14-F(W-4900)을 통과시켰다 ("Marriage involves a unique commitment between two people, traditionally a man and a woman, to love and support each other for the rest of their lives").

하거나 주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거나 주례를 거부하는 목회자에게 있을 수 있는 박해나 불이익이 반드시 있다.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주 정부 차원의 소송이나 동성애자들의 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아직은 견제하다(대표적으로, PCUSA 한인교회총회 - NCKPC).

NCKPC 총회장을 역임한 정인수 목사(아들란타연합장로교회 담임)는 지난 3월 19일자 호소문을 통해 "미국장로교가 동성결혼과 관련된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 미국장로교내 한인교회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이제 신학적인 문제를 넘어 미국장로교내 한인교회들의

IS, 다음세대 테러위해 어린이들 끌어들인다!

(1면에서 계속)

아프리카나 남미의 소년병과 IS의 테러에 투입되는 어린이를 동일하게 다룰 순 없다. 소년병 모집에는 강제적인 납치, 무력, 약물 등이 사용된다. 반면에 테러조직입단은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단체에 응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더 점진적인 과정을 거친다.

테러 단체는 오래 전부터 어린이 교화를 방침처럼 지켜왔다. 중동, 유럽, 북미에서 활동하는 많은 단체들은 어린이들을 가담시켜 테러 단체의 장기 존속을 도모한다. 세스 존스와 마틴 립키의 2008년 연구에 의하면 거의 모든 테러 단체는 대체로 2년 이상을 못 간다. 따라서 테러 단체는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 다음 세대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테러 조직들은 어린이를 겨냥한 청소년

년 조직과 훈련소를 형성하고 그들에게 결맞는 선전 활동을 벌인다. 대부분의 테러 단체는 "일선에 설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어린이를 보조 역할에 국한시킨다. 청소년 조직은 북아일랜드(오그라 신 페인) 레바논(헤즈볼라 여름 캠프) 또 스리랑카(타밀엘람해방호랑이)의 바쿱 그룹)에도 존재한다. 살상 활동에는 최하 연령 기준이 있다고 각 조직마다 주장한다. 그런데 그런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는 단체 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적어도 IS처럼 공개적으로 어린이를 살상 무기로 여기는 단체는 많지 않다.

어린이는 주로 망보는 역할 또는 메신저나 무기 전달자로 시작한 뒤 테러 조직의 여러 단계를 졸업해 결국 일선에 서게 된다. 그런데 IS는 이런 테러 견습기간을 무시하고 어린이들을 곧바로 일

선에 투입하고 있다.

소년병은 고아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자기를 고아로 만든 단체에게 오히려 '입양'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반면에 IS에선 가족 단위가 유지되는 사례가 흔한데 그 이유는 IS에 가담할 때 가족과 함께 입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자녀의 IS 참여를 직접 격려하는 부모도 있다.

IS는 소아성애자(pedophile)의 전술을 도용했다. 그들은 몇 주 몇 달 동안 어린이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어린이가 점차적으로 겪게 한다. 소아성애자가 초기에는 단순한 터치로 시작해 점차적으로 더 적극적인 접촉을 시도한 뒤 성폭행을 행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있다. IS는 똑같은 수법을 지향하고 있다. IS의 아이들은 참수형 영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해 참수형을 직접 구경하게 되고, 그런 다음 직접 참수형에 가담한다.

테러 그룹들은 아이들을 일종의 희생 양으로서도 끌어들인다. 제시카 스텐과 J.M. 버거의 책 'IS: 테러 정체'에 의하면 IS는 어린이들을 인간 방어벽 또는 강제 현혹자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어린이들에게 어떤 장기적 파장을 가져오게 될지는 추측하기 어렵다. 극심한 폭력을 어려서 겪는 경우, 애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성장단계에서 겪을 수 있다. 이전에 소년병이었던 아프리카의 소년들은 심리 사회적 인 치료와 직업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DDRR 프로그램(Disarmament-무장해제, Demobilization-동원 해제, Rehabilitation-회복 and Reintegration-복원)을 통해 회복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IS 소년들에게 효과가 있으려면, 뒤돌린 가치를 추구하는 커뮤니티에서 먼저 해방되어야 한다.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는 옳고 그른 것을, 또 선과 악을 왜곡하는 IS라는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

목회칼럼



손원배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우리 교회 건물은 서편 큰 로비와 동편 작은 로비를 긴 복도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편에 있는 저의 사무실에서 본당을 오가려면 이 긴 복도를 지나야 합니다. 서로 눈길을 피할 수 없는 좁은 복도입니다. 주일에는 특히 이 복도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이 복도는 어린 시절 시골 장터처럼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장소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컸구나!" 늘 유모차에서 누워있던 갓난아기가 벌써 커서 꾸벅 인사를 하며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손을 잡고 걸어오던 젊은 부부가 슬쩍 손을 놓고 인사를 합니다. 세월과 함께 점점 느려지는 권사님들의 걸음에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나 연세 드신 권사님들의 마음은 여전히 파르팍한 소녀입니다.

제 걸을 지나는 분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환히 웃어주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웃을 없이 중중히 인사만 하고 서둘러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니다. 언뜻 보면 이 두 부류의 분들에게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관찰을 해보면 실상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여유'라는 것입니다.

마주칠 때 사람들에게 환히 웃어주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삶에 여유가 있습니다. 윤행유가 말라서 빼걱거리며 돌아가는 기계처럼 각박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여유는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타고난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한숨을 내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마주치는 사람들의 환한 웃음 속에서 우리는 정체모를 평안을 느낍니다. 지친 생활 속에서도 바쁜 걸음을 자제하지 못하고 서둘러가는 사람들에게 인식을 가져다줍니다.

이제부터는 복도에서 사람들을 마주칠 때, 서둘러 지나치지 말고, 환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합니다. 내 마음에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기쁨이 솟아날 것입니다. 바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던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집에 들어설 때 얼굴에 큰 웃음을 머금고 평소보다 크게 "여보" 하며 불러 보십시오. 가정이 갑자기 신기하게 환해질 것입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웃으면 사람들이 신기하게 거울처럼 따라 웃습니다. 그러나 내가 웃지 않으면, 웃던 사람들도 얼굴이 곧 굳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합니다. 하루를 지나며 짜증이 날 때, 심호흡을 세 번하고, 크게 웃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던 주님이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세상에서 놀라운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사실인지 실습을 해보세요. 뜻밖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담임목사 청빙공고

가든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몸소 실천하며 헌신하는 참된 종을 찾고 있습니다.

The Korean Garden Church

자/격/요/건

1. 현재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 교단소속 목사 또는 교단 가입에 문제가 없는 개혁 교단 소속 목사
2. 정규 신학 대학원(M.Div.) 졸업하고 목사 안수 후 5년 이상 목회 경력이 있으신 분
3. 40~55세(기혼) 되신 분
4. 캐나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캐나다 영주권/ 워킹퍼밋 소지하신 분
5. 신원조회 결과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처

청빙위원장 : 조준상 장로 (416-449-7600)
 서류 보내실 주소 : Attn to John Cho
 1993 Leslie St., Toronto, On Canada M3B 2M3
 이메일 보낼곳 : newconcept@c21toronto.com

제/출/마/감 2015년 6월 30일까지

* 전화문의는 사양합니다.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 가든교회 청빙위원회 일동

제/출/서/류

1. 이력서(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첨부 - 목사/사모) 1부
2. 자기소개서(성경배경, 앞으로 2세 교육에 대한 Vision 포함, Letter 용지 3매 이내)
3. 목회계획서(목회 철학, 비전과 계획, Letter 용지 5매 이내)
4. 목사 안수 증명서
5. 대학(B.A) 및 신학대학원(M.Div.) 졸업증명서 1부
6. 현재 소속 교단확인서 및 증명할 공증 사본 1부
7. 설교 동영상 2편(구약 1편/신약 1편)
8. 추천서 2통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꼭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약함이 강함이라?

크리스천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가 있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찬양입니다만... 그런데 약함이 어떻게 강함이란 말인가? 약함은 약함이고 강함은 강함이 아닐까요?

그 외에 크고 작은 삶의 문제가 모두 약함이 되겠지요. 자세히 살펴보면 약함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드러내기를 꺼립니다. 또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 보이면 무시, 혹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 찬양의 영어 가사가 약함이 강함이라는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시 성경 말씀대로 내 약함이 강함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때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란 거창하고 거룩한 목적을 걸고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듯 기도하며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함은 반드시 강함이 되어야 하나요? 약함이 약함으로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혹시 크리스천들이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가 강해지고 싶은 욕구 때문은 아닐까요?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과 신앙을 이용해서라도 강해지고 싶은 마음 때문은 아닐까요? 그냥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나요?

이 찬양의 영어 가사가 약함이 강함이라는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해줍니다(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내가 약할 때 당신은 나의 힘입니다). 나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점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해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고후 12:10).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거나 나를 강한 자로 만드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약한 그 때'를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부는 딸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부모가 힘을 빼고 연약해져야 딸과의 소통이 원만해집니다. 부모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 사회적인 지위와 물질 등을 내세우면, 아직 미숙한 자녀 앞에서 '부모의 강함'만을 드러냅니다. 자녀의 사소한 사생활까지 참견하게 되고 인생의 경

험을 토대로 끝없는 잔소리를 퍼붓게 됩니다. 자녀는 그런 부모 앞에서 자신감을 잃거나 반발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 하나님 자신이 자녀의 힘이 되어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도 부모의 힘이 되어 주려고 노력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로 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너무 연약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보다 목회자가 너무 강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에 성공하려는 욕망이 지나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보다는 '사람의 강함'이 드러나 하려 하는 것도 헛되고 진리도 신앙한 자녀 앞에서 '부모의 강함'만을 드러냅니다. 자녀의 사소한 사생활까지 참견하게 되고 인생의 경

을.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분을 의지하면서 목회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약함을 솔직히 인정할 때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 예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면 매일의 삶 속에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때에도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솔직한 고백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우리나라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고 싶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약함을 가지고 살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가'입니다.

푸 / 른 / 초 / 장

김광삼 목사
(나성제일교회)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전파하는 종교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 성도들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말이다. 우리는 주일 아침 예배 때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신앙고백을 한다.

가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자 도망갔던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분명히 두 눈으로 만나보았다. 도마는 손으로 만져 보며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기독교가 온 세

를 믿는 종교이다. 역사 이래로 예수님 같이 산 사람이 없다. 예수님은 거짓말 하신 적이 없다.

그는 진실하신 그 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요11:25-26). 이러한 말씀이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말 같은가? 미치광이의 말 같은가? C. S. 루이스의 말대로 우리는 예수님 말 앞에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무릎 꿇든지, 아니면 미치광이라고 소리치고 떠나야 할 것이다.

람도 있다. 또한,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 내세를 믿는 사람이 있고, 내세를 안 믿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부활도 있고, 내세도 있다고 말한다. 문제는 내세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는 방법이 다르다. 목적도 다르다. 인생관이 다르다. 역사관이 다르다. 가치관이 다르다. 내세를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고 했다(고전15:32). 안 믿는 사람은 내세를 안 믿으니, 내세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도 없다. 내일의 소망이 없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씀과 부활을 통해서 내세를

생명의 종교, 영생의 종교로 증명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도 믿는다는 말이다. 부활을 안 믿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부활 사상을 모르면 기독교를 모른다는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진리도 신앙도 봉사도 다 소용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전15:14).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사랑도 봉사도 희생도 귀한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부활을 믿기에 그 나라갈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다. 부활은 과학

내가 동참함으로 내가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깊이 생각해 보면 살아계신 예수님은 그 때 그 무덤을 현주소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현주소로 삼고 여기와 계신다. 주님은 2천년전 유대 땅에 계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생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현주소로 삼고 나를 성전 삼아 여기 계신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주님은 죽은 자의 주님이 아니요, 산 자의 주님이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2:20).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며 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며,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적 부활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③미래의 부활 : 우리 성도들은 언제 부활하는가? 예수님의 재림 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활하여 영생복락의 세계에 들어갈 것이다(51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산다.

결론
기독교신앙은 부활신앙이다. 주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살아나신 사건이다. 우연의 사건이 아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전15:3-4).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종교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인 동시에 신앙의 사건이다.

②현재의 부활 : 예수님의 부활에 (16면으로 계속)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20절)

(고전 15:12-24)

상에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전파 내용이다. 기독교가 왜 다른 종교와 다른가?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무덤에 들어가서 한줌의 흙이 되어 역사에서 사라졌다. 무덤에 갇혔다가 살아나 온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을 박차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무덤이라는 것이 차이이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도 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반

이 없다. 그러나 사실을 말할 때 힘이 있고, 진리를 말할 때 능력이 있다. 거짓을 말하면서 순교까지 하는 사람은 없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2000년의 역사이다. 역사학자 토마스 아놀드 토인비가 말하기를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확실한 역사적 사실은 없다"고 했다. 오늘 본문 20절에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다. 부활의 사건은 역사 이래 가장 처음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부활을 못 믿는 사

으로 설명할 수 없다.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요, 구원의 역사이다. 이제 우리는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해야 한다. 그래야 나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해야 나도 부활할 수 있다. 끝으로 부활에는 3가지 부활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①과거의 부활 : 즉,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전15: 5-8, 24). ②현재의 부활 : 예수님의 부활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39회 총회 소집 공고 및 등록안내

The Preparation Committee for The 39th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총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39회 총회에 참석하시는 총대를 위한 호텔예약일정과 등록에 관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총회일시: **주후 2015년 5월 19(화) - 5월 22(금)** / 3박 4일
- 2. 장 소: **Viale Hotel (Iguazu Airport, Brazil)** <http://www.vialehotels.com.br>
Av. das Cataratas, 2420. Foz do Iguacu Parana Brazil Phone: 55-45-2105-7200
- 3. 등록비: 총회기간의 숙식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는 미화 USD입니다).

객실구분	등록마감일 및 참가비		
	1차(2월 1일까지)	2차(3월 1일까지)	3차(4월 1일까지)
2인1실(1인당)	\$ 390	\$ 440	\$ 465
1인1실	\$ 750	\$ 800	\$ 825
부부	\$ 750	\$ 800	\$ 825

* 이곳 물가 사정상 지원금 사정이 미약함을 양해바랍니다.

- 1) 개인숙식: 개인적으로 숙식을 정하시고 총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등록비 \$ 130 를 납부하셔야하며, 호텔에서 식사하실 경우에는 식비 \$ 170를 납부하시거나 식권을 구매하여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 2) 총회에 하루 일찍 오실 분이나 폐회 후 하루 늦게 가실 분들은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4. 등록 및 송금안내: 송금은 미국 은행의 수표 혹은 Money order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표의 Memo란에 반드시 참가하시는 분의 성함을 기재해서 등록서와 함께 우송해주시기바랍니다.

* Payable to : Rev. Jung Yon Jung
* 보낼 주소 : Rev. Jung Yon Jung (112 Polo Dr, North Wales, PA 19454 USA)

- 5. 교통안내:
1) 총회장소인 Viale Hotel에 오시기 위해서 총대분들께서는 반드시 브라질 이과수 국제공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공항은 차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2) 공항 셔틀버스를 별도 계약해서 30분 간격으로 운영하오니 이용바랍니다. (셔틀버스 이름 : 추후공지)
전화문의: Viale Hotel (55-45-2105-7200), 김진원 목사 (54911)6757-7649
- 6. 접수: 총회 첫날 접수는 오후 2:00부터, 저녁식사는 오후 5:00부터, 그리고 개회예배는 오후 7:00에 드립니다.
1) 등록마감일(4월 1일) 이후 신청시 호텔숙박은 준비위원회에서 보장해 드릴 수 없습니다.
2) 등록하신 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호텔과의 계약상 등록비 환불은 안 됩니다.
- 7. 기타:
1) 기타 문의사항이나 도움을 청하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등록: 백진국 목사 (5959)8242-0023 총무: 박성훈 목사 (54911)6051-6832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정관일목사 서기 최동진목사
총회준비위원장 왕익상 목사 김지문목사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역사성의 문제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성경은 역사적이다. 신화나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며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의 역사적인 기록이다. 과연 성경은 역사적으로 믿을만한 것인가? 대답은 물론 '예'이다. 구약과 신약은 이미 많은

중요에 기록된 비석이었다. 이 비석은 바로 세우는 돌인데 중요한 성취를 기록한 기념비인데 거기에는 '다윗의 집 House of David'이라는 말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다윗 왕국이 통일왕국으로 역사 가운데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여리고의 성벽은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진 여리고 정복사에서 나온다. 여리고의 존재는 발굴 작업으로 오래 전에 확인되었다. 성벽이 바깥으로 무너진 것이 확인되었다. 당시에 성벽의 높이는 적어도 12-15피트 정도이었을 것이다. 성벽이 바깥으로 무너짐으로 이스라엘 군대는 무너져 내린 성벽을

후 30년에 만들어진 비석으로 주변의 있는 신전을 황제에게 봉헌하는 비석인데 원형극장의 층계에 직석의 재사용되어 있었다. 거기에는 라틴어로 '티베리움, 본디오 빌라도, 유대의 총독'이라는 비문이었다. 빌라도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비판이 잠재워졌다.

십자가 형벌이 있다. 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심해왔다. 그 사형법에 대한 정확한 방법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십자가형은 노예와 반도들을 향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그들은 죄인을 나무에 못 박던지 아니면 묶어 두어서 죽게 버려두었다. 마태복음 27장의 형벌에 대하여서 최근에 이르러까지 어떤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1968년도 이스라엘에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의 유골이 발굴되었다. 못이 사형수의 발을 꿰고 나무를 관통하여 휘어진 상태로 발굴이 되었다. 십자가 형벌이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증거들이 풍성하다.

신약성경의 사본의 숫자는 2만4천의 자세한 부분에 일치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본들이 큰 부분에서 거의 모두 일치한다는 데 동의한다. 약 92.2%가 일치한다고 한다. 차이가 있다고 주장되는 7.8%에서도 오직 1%가 의미심장한 차이라고 인정된다. 여기 의미심장한 차이의 예가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7을 보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에서 epio에서 한자가 틀리면 nepio가 된다. 이것은 분명한 복사할 때 발생한 오자임을 알 수 있다.

사본을 확정하는 외적인 증거들이 있는가?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들이 성경에 대하여 증거한다.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 요세프스의 저서들 속에서 신약과 그 인물들에 대하여 말한다. Tacitus의 연대기 Annals, Pliny the Younger의 편지, 루시언의 The Works of Lucian of Samosata, Celsus, 그리고 유대인 탈무드 산헤드린 43a 등이 있다.

그 외에도 62년도 순교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유골함이 발견되었다. 거기에는 '예수의 형제 요셉의 아들 야고보'라고 새겨져 있다. 1955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성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그리고 세밀한 부분들이 고고학적으로 입증되었다.

고고학이 성경을 지지하는가? 최근의 많은 고고학적인 발견들은 성경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성경을 믿지 않는 학자들의 도전을 잠재웠다. Grant Jeffrey 그의 저서 The Signature of God 에서 "학자들은 성경의 기록을 절대적으로 부정할만한 고고학적 증거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지난 1세기 동안 가장 뛰어난 유대인 고고학자 Nelson Glueck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고고학적인 발견은 없다"라고 했다. 심지어는 성경을 믿지 않는 고고학자도 아브라함 시대의 창세기의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성경의 역사적 문화적 정확성을 인정한다.

성경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의미심장한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들은 많이 있다. 그 중에 최근의 발견 몇 가지의 예를 들어 본다.

텔 단의 비석 The Tel Dan Stele 이 있다. 여러 해 동안 학자들은 성경의 다윗 왕이 가공의 허구의 인물이거나 아니면 역사적인 의미가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지어왔다. 그런데 1993년도에 고대도시 텔 단을 발굴하던 중에 현무암 비석을 발견했다. 이 비석은 성경 바깥에서 다윗왕을 언급하는 가장 오래된 자료이었다. 1피트 정도 되는 크기인데 주전 9세기

중개로 삼아서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안쪽으로 무너졌다면 성벽을 넘어가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여호수아 6:24은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태웠다고 했다. 고고학은 그 사실도 확인했다. 이스라엘 군대에 의하여 파괴된 부분은 바로 동쪽이었다. 고고학자들이 약 3피트 깊이 정도의 불탄 재와 잔재들을 발굴했다. 그리고 불탄 곡식들이 가득한 항아리들을 많이 발굴했다.

사해사본도 있다. 사해사본이 발굴되기 전에는 가장 오래된 구약의 사본은 주후 10세기의 사본이었다. 사해 지역의 쿨란에서 1947년부터 1956년 사이에 발굴된 사본들은 양피지와 파피루스에 기록된 것들이었다. 이것들은 주전 2백년부터 주후 70여년 사이의 사본들로서 사상 최대의 구약성경이 발굴되었다. 에스터서를 제외한 모든 책이 다 발굴이 되었다. 다른 자료들도 함께 많이 발굴됨으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되었다. 사해사본은 구약성경의 정확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빌라도의 헌정비 Pontius Pilate Dedication Stone도 있다. 1961년까지는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빌라도의 역사성에 대하여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다. 성경 외에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가상의 인물이라는 주장이었다. 1961년 6월에 32인치되는 석회암 비석이 고대 가이사라의 원형극장에서 발굴되었다. 이것은 주

개가 더 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본들이 얼마나 신뢰할만 한가? 그리고 그 사본들의 연도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서로 상충되는 내용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된다. 신약의 정확성은 확실하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5백명이 넘는다고 했다(고전15:5-8). (1)이러한 신약 사본들은 기록의 연도와 매우 가깝다. 그리고 그 사본들의 진실성은 당시에 살아 있었던 사건의 목격자들과 증인들에 의하여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신약의 대부분의 책들은 교부들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Clement 95년, Ignatius 107년, Polycarp 110년 등이 많은 교부들이 신약성경에 대하여 증언했다. (3)대부분의 신약 성경들은 초대교회의 변증가들에 의하여 인용되었다. Justin Martyr 133년, Ireneus 125년, Clement 150-212년, Origen 185-253년, Tertullian 160-220년, Hippolytus 165-235년, Eusebius 265-340년 등이 성경을 인용했다. (4)신약사본의 숫자는 고대의 어느 사본의 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많은 사본이 존재한다. Plato는 6개의 사본이, Caesar의 Gallic Wars는 10개의 사본이, Homer의 Iliad 643개의 사본이 존재한다. 반면에 신약사본은 2만4천개가 넘는다. 비교할 수 없는 진실성을 증명한다.

그렇다면 이런 사본들은 상충되지 않고 서로가 일치하는가? 신약의 성경은 모든 중요한 교리와 대부분

년에는 나사렛 도시가 재발굴되었다. 1990년도에는 가이바 비문이 발굴되었다. 1961년에는 빌라도의 이름이 발견되었다. 누가 언급한 이름들이 텔피와 고린도와 다른 사이트에서 발견되었다. 사도행전의 누가가 기록한 바울의 행적을 따른 도시들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발굴되었다. 1968년에는 십자가 형벌의 처형자가 발굴되었다. 1929년에는 고린도의 재무이었던 에라스도 Erastus 라는 이름이 발굴되었다(롬 16:23). 고린도의 포장된 길을 만든 사람이 바로 에라스도이며 그의 직책도 발굴이 되었다. 성경과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죽은지 나흘 만에 살아나서 유대에서 사이프러스로 도망하여 라나카Larnaca교회의 감독이 된 베다니 나사로의 석판이 발견되었다. 석판에는 "나사로, 라나카의 감독, 4일동안 죽음. 예수의 친구"라고 새겨져 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적인 것을 확정할 수많은 든든한 증거들이 있다. 성경은 역사적이다. 성경의 하나님과의 조우도 역사적인 사건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들이다. 성경은 진리이다. 세상의 과학도 오늘까지 증거한다.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자.

이메일:revdavidkim@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E-Mail: tpsc0316@gmail.com

Q: 현재 중동과 무슬림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들이 핍박을 받고 있으며 구체적인 핍박의 실례를 알고 싶습니다.

A: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종교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입니다. 과거 냉전시대는 공산주의자들에게서 핍박을 많이 당해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지만 지금은 무슬림과 힌두교도들과 무신론자들에게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많은 크리스천을 가진 나라는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는 아브라함의 출생지요 과거 에덴동산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라크는 작년까지 기독교인의 수가 1500만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의 기독교인들은 IS의 끔찍한 박해로 죽거나 이라크를 떠나 망명길에 올랐고 지금은 겨우 40만명의 기독교인들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시리아와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갑자기 밤중에 집으로 들어다치는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에게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일이 비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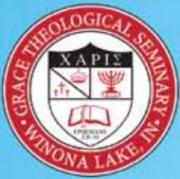
기독교, 미국을 비롯 전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종교 돼

비해하다고 합니다. 엄마와 딸은 아빠가 지켜보는 앞에서 강간을 당하고 아빠는 딸이 보는 앞에서 목이 베입니다. 이렇게 중동의 크리스천들은 현재 대한난중서 죽음의 공포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도의 크리스천들은 힌두교로의 개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산 채로 휘발유에 불타 죽거나 칼과 도끼를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인도에서만 400개 이상의 교회가 파괴되었고 4,000개 이상의 가정집이 힌두교도들에게 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신문을 보니 케냐 북동부의 가리사 대학 캠퍼스에 소말리아 무장단체인 알샤바브 대원들이 학교 기숙사에 난입하여 AK-47 소총을 들고는 기숙사학생들에게 일일이 그들의 종교를 물어보고는 이슬람이면 살려주고 기독교인들은 총으로 쏘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147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2억의 기독교인 중 어떤 형태로든 신앙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비율이 1/3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날 미국도 기독교가 서서히 무신론자들과 동성애자에 의해 핍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에서 기도가 없어지고 십계명과 십자가가 철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도에나 주의 뜨거운 이슈는 동성결혼문제였습니다. 주헌법을 개정해 동성결혼을 불법화 하려던 시도는 무산되고 10월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동성결혼은 합법화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보수 공화당원들사이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종교 자유법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 마이크 펜스 주지사의 서명으로 종교자유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각계에서 동성애자들이 데모하고 비난이 쏟아지고 대기권 등이 등을 돌리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항복했습니다. 동성애자 차별금지 조항을 넣어 다시 법을 만들었습니다. 미국도 이제는 기독교가 공개적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성경으로 이유로 반대하면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했습니다.

중동과 전세계에서 핍박받는 크리스천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5 봄학기 지역강의 안내

April 13-17 (4월 13일-17일)
DI 8230 Cultures in the New Testament
Dr. Matthew Harmon

2015년 졸업식

일시: 2015년 5월 9일(토) 오전 9시
장소: Manahan Orthopaedic Capital Center (그레이스 대학교 캠퍼스내)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증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반타와 라이(The Bantawa Rai of Nepal)



네 팔의 이 조그마한 독립왕국은 인도와 티베트 사이의 히말라야 남쪽 경사면을 따라 위치해 있다. 이곳은 대략 110여개의 다른 종족의 고향으로 각기 자신의 문화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 이 나라는

원래 농업국으로 대부분 농사에 의존해 살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여전히 가난하고 발전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반타와 라이는 동네팔에서 가장 큰 종족인 '라이'로 알려진 사람들의 집합체에 속해있다. 라이 그룹의 각 종족들은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또한 고유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언어는 고유 언어에서부터 지방언어의 혼합까지 변형해왔다. 그들의 얼굴 형태는 몽고인을 닮

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몽골과는 아무런 혈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신들이 마레마(marema), 마하데바(mahadeva), 니나(nina-지구의 딸)의 후손들이라고 믿고 있다.

삶의 모습

반타와 라이는 원래 농사를 짓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기술적인 지식이 불충분해서 수확을 많이 거두지는 못한다. 저지대에서는 쌀을 사들고, 고지대에서는 감자, 옥수수, 밀, 보리를 기른다. 여자들이 씨를 뿌리는 동안 남자들은 밭을 갈며, 가족들은 수확기에는 단결에서 서로를 돕는다.

주택은 전형적으로 초가지붕을 가진 돌이나 나무로 돼 있으며 보통 주변에 나무로 된 현관을 가지

고 있다. 전체적으로 라이인들은 매우 용감하고 친근하고 겁 없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군대에 들어가는 것은 종종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된다. 또한 군인은 고위 군인일수록 존경과 명예를 얻게 된다.

라이인들 사이에 결혼은 매우 큰 축제이다. 어떤 결혼은 콩피(kongpi)라고 하는 결혼의 세부적인 것들을 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간소해진다. 선물이 가족들에게 전해지고, 그 선물을 받게 되면 결혼 날짜가 잡히게 된다. 어떤 결혼은 여자를 '보쌈(arranged kidnaping)'해감으로써 간소화되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방법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믿는다.

결혼할 때는 가족들과 마을의 어른들에게뿐 아니라 신랑, 신부의

부모님께도 선물을 드린다. 보통 돼지나 수탉 같은 동물들도 잡는다. 음식과 음료수가 풍성하게 제공되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는 보리와 감자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밤을 노래와 축제로 새우기도 한다.

신앙

귀족계급을 포함한 네팔 인구의 90%가 힌두교인이다. 그러나 힌두교와 불교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존재하며 약간의 혼합되었다.

반타와 라이의 대부분이 힌두교인이며 또한 그들 중 많은 수가 애니미즘 신봉자이기도 하다. 더구나 불교에서도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혼합은 그들 사이에서 넓고 다양한 신들과 경배 행위들을 만들

어냈다. 이런 관습들은 대부분 탄생, 결혼, 죽은 사건을 통해 분명해진다. 힌두교의 영향은 죽은 자들에게 매장보다는 화장하도록 이끌었다.

필요로 하는 것들

네팔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숨겨져 있었고 잊혀져 있었다.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개종도 심하게 반대하며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금지시켰다. 신앙교제의 행벌도 너무나 가혹하다.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인해 교도소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반타와 라이는 자기 언어로 된 성경 또는 영화 예수를 가지고 있지 않다. 현재 이들을 선교하기 위한 선교단체도 있지 않다. 그들 중 그리스도인은 44명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3만4천여 미 흑인교회, PCUSA와 교류 단절 선언

미국 15개 교단에 속한 3만4천여 흑인교회들이 미국 장로교(PCUSA)의 동성결혼 허용을 비판하며 교류 단절을 선언했다. 이들 교회들이 속한 전미흑인교회협의회(National Black Church Initiative)는 성명을 내고 PCUSA에 회개를 촉구했으며,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결정을 번복하기 전까지 PCUSA와의 모든 교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NBCI 회장인 앤서니 에반스 목사는 성명에서 "NBCI와 회원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며 PCUSA의 모든 형태자매들에게 회개하고 관계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에반스 목사는 이어 "PCUSA의 결정은 교회와 교인 전체에 대한 범죄"라며, "이 같은 결정으로 PCUSA는 2천 년을 이어 온 성경 말씀과 전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을 기독교 교단이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PCUSA는 이 잘못된 결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릴) 자격을 포기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NBCI는 1천5백만여 미국 흑인교회를 대표하는 단체다.

PCUSA는 지난 17일 교단 헌법 내 결혼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는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킴으로써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교단이 됐다.

이번 결정은 교단 내 보수 교회들의 강력한 반발을 낳고 있다. PCUSA는 2010년에 독신을 유지하고 있는 동성애자에 한 해 성직 임명을 가능한 쪽으로 교단 헌법을 개정했으며, 이에 반대하는 많은 보수 교회들이 교단을 떠났다.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이번 헌법 개정으로도 2010년 때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NBCI 내 보수 흑인교회들이 교류 단절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에반스 목사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며,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권리가 없다. 결혼을 재정의하면서 PCUSA는 그리스

도의 구원의 복음을 변질시켰다"며 "이것이 우리가 (PCUSA와) 교류를 단절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모든 기독교 세계가 이와 같이 해야 한다"며 다른 교단과 단체들 역시 PCUSA와의 관계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IS, 소년대원이 건넨 흉기로 8명 참수 영상 공개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29일 조직원들이 소년 대원으로부터 건넨 흉기로 시아파 이슬람교도로 추정되는 남성 8명을 참수하는 장면의 영상을 공개했다. IS는 이날 시리아 중부 하마 주에서 IS 조직원들이 '시아파 죄수들을 처형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장면을 담은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렸다.



영상에서 인질 8명은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두 손을 등 뒤로 묶인 채 10대 소년 대원에 의해 '처형 장소' 끌려나온다. IS 조직원들에게 넘겨진 인질들이 무릎 꿇고 앉자 검은 옷을 입은 소년 대원들은 신이 난 듯한 모습으로 조직원들에게 흉기를 건네고, 조직원들은 이를 사용해 참수를 자행한다.

IS 조직원 가운데 한 명은 영상에서 시아파를 멸시하는 의미의 "불순한 이교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조직원은 또한 IS를 겨냥한 군사행동은 자신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칼이 조만간 누세이리와 바샤르 알아사드 같은 그들의 동맹을 겨눌 것"이라고 말했다. 누세이리는 알사드 대통령이 소속된 시아파 분파인 알라위파를 모욕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이 영상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레바논 국영통신 NNA는 이와 관련, 지난 1월 시리아 국경 인접지역에서 납치된 '요네스 후자이라'라는 이름의 수니파 무슬림 남성이 참수됐다고 그의 가족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영상 속 인질 가운데 후자이라가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IS는 지난해 이라크와 시리아의 상당 지역을 점령한

이래 수십 명을 참수했다. 최근에는 소년 조직원이 직접 총을 쏘아 인질을 죽이는 장면이나 이들의 훈련 장면을 담은 영상을 잇달아 공개하는 등 어린이들을 잔혹행위에 동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터키군 당국은 전날 몰래 국경을 넘어 시리아에 진입하려 한 네덜란드인 5명을 붙잡았다고 29일 발표했다.

북한 억류 임현수 목사, 석방위한 기도회 확산

북한에 억류된 임현수 목사의 안전 귀환을 위한 기도회가 캐나다뿐 아니라 전 미주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큰빛교회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임 목사의 구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3000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큰빛교회는 임 목사의 구명에 방해되는 어떤 행동도 자제해줄 것을 언론 등에 당부하고 교계와 사회에는 임 목사 석방 서명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캐나다 온타리오 교회협의회가 큰빛교회에서 임 목사의 석방과 송환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기도회는 온타리오 교회협의회와 목회자를 비롯한 여러 교회 성도들과 각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진행됐다.

교단의 대표들은 임 목사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기도문과 함께 북한정부와 캐나다 정부, 그리고 유엔에 임 목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당부하는 호소문을 낭독했다.

임 목사의 석방을 위한 호소문에는 북한이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할 때부터 북한을 110차례나 방문해 인도주의 구호활동을 한 임 목사가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다며 특히 임 목사는 한 번도 정치적 활동을 한 적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임 목사를 위한 기도회는 토론토의 알파교회, 오타와의 한인교회 등 캐나다 전 지역뿐 아니라 미국의 뉴저지와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미주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캐나다 주요 언론뿐 아니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세계 주요언론들도 이 사실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임 목사에 대한 관심은 교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까지 정확한 억류원인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여개 기독교시민단체들이 '임현수 목사 석방을 위한 기독교시민단체협의회'를 결성하고 서울 정부청사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목사의 석방을 촉구했다.

현재 라진-선봉지역에서 대북인도적 지원을 위해 여러 선교사를 파송한 한 캐나다 교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노력에 따라 이들의 향후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목사는 지난 1990년 토론토 큰빛교회에 부임한 이래 북한의 고아들을 돌보는 일부터 시작해 국수공장, 라면공장, 등 상당한 큰 규모의 대북지원을 해오면서 캐나다는 물론 전 미주지역에서 앞장서 북한 선교를 이끌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광장에 일몰 퍼레이드 등장?

서울시가 동성애자 등의 축제인 '퀴어문화축제 2015' 주최 측에 서울광장 사용 신고를 수리해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이 서울광장에서 축제를 열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수재단(대표 임요한) 회원들은 29일 서울광장에서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 음란축제 서울광장 사용 즉각 취소하라' '동성애 누드축제 청소년을 병들게 하고 대한민국을 망친다'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3일째 시위를 벌였다. 임요한 대표는 "서울시가 음란·광란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서울광장을 동성애자들에게 내준 것은 통탄할 일"이라며 "박 시장이 이를 취소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선민교육학부모연합(대표 이재홍)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시가 시민들 모르게 (퀴어문화축제 측에) 서울광장 사용 신고를 수리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박 시장은 (서울을) 과거 소동과 고모라처럼 음란의 도시로 만들어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키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서울시민들은 이를 방관하지 말고 서울시 관계자 해임은 물론 (서울광장 사용) 승인을 박 시장의 조기 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사역자 청빙

Seeking for a part-time(20 to 25 hrs/wk) or full-time (40hrs/wk), dedicated and faith-filled Youth/Elementary/Preschool Director to minister to the needs of our children/youth, and leading them to spiritual commitments, disciplines, and discipleship that will result in spiritual maturity.

중부워싱턴 한인장로 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과 조건을 가진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1. 교회 교육에 경험 있으신 분
2. 2세 신앙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신앙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린이들과 선생님들과 화합하며 재미있게 일하실 분
3. 영어 사용이 가능하고, 건전한 교단 배경을 가지신 분
4. 미국 영주에 지장이 없는 분

- 서류제출(이력서(Resume) 와 신앙간증서(Statement of Testimony))들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례비는 교육과 경험에 준하여 결정되고 필요한 이사회비를 도와드립니다.

장소및연락처
Attn: 담임목사심수일(Senior Pastor: Sooil Shim)
950 Gage Blvd. Richland, WA 99352
Tel:509-627-9005E-mail:sooil10@hotmail.com

중부워싱턴 한인장로 교회

담임목사님을 모십니다

해의한인장로회 일본 노회 소속 요한서울 교회는 일본선교, 세계선교 비전의 하나됨과 영감있는 복음적 말씀전포, 섬김의 목회로 요한서울 교회의 성장에 함께 하실 담임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자격 (1) 연령: 만 40-59세 (2) 학력: 정규신학대학 또는 일반대학 졸업 후 신학대학원 (M.Div.) 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3) 경력: 목회경력 10년 이상
2. 제출서류 (1) 1차 서류 ● 담임목사 지원서(최근 3개월 이내 명함판사진 1매 포함) 1부 ● 추천서(존경하는 목회자 2인 이상) ● 사역교회 주보 ● 학력조회동의서 (2) 2차 서류(1차 심사 후 개별통지 받은 분에 한함) ● 학위증명서 각 1부 ● 본인 및 사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소속 교단 및 노회 소속 증명서, 자격증, 출판물 등
3. 서류제출 기한 및 제출처 (1) 2015년 4월 8일(수)까지 (2) 이메일 주소: yohanbridge@naver.com
4. 기타 (1) 지원서는 교회홈페이지 (www.yohan.com)에서 다운받아 사용함 (2) 모든 서류는 메일로만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궁금하신 사항은 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4) 결과는 개별 통지함

해의한인장로회 요한서울교회 임시당회장 노명숙 목사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13)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교회 - 세속 역사가 요세푸스 (4)

이슬람들의 경전인 '코란'에 소개된 예수는 어떤 모습일까? 그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동정녀의 몸으로 탄생하였으며 죄가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들은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임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를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 '예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나쁜 죄악이라고 가르친다. 이것이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란 사실의 증거에 대한 한계이다.

질문: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라고 증거 하는 세속 역사가 요세푸스의 정보가 주는 유익과 한계를 알고 있는가?

1) 교회역사를 보면...

■ 예수에 대한 언급

주후 90년경에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에 예수에 대한 언급이 있다.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예수의 부활과 승천 직후에 살았던 세속 역사가라는 점에서 대단한 신뢰를 준다. 이 책에서 그가 '예수'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서술한 예수의 행적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성경에 대한 역사적 객관성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요세푸스는 예수를 우리가 이해하는 '성자 하나님' 또는 세상 죄를 담당하신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예수를 동시에

의 유대인으로 이해하였지만,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을 많이 지닌 특별한 인물이었다고 증거 한다. 남다른 지혜를 가진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처음부터 많았다. 예수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를 고소한 결과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부활했다. 요세푸스는 그로부터 60년 정도가 지난 시간에 글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이어져왔다고 증거 한다.

요세푸스의 글을 직접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즈음에 예수라

고 하는 한 현자가 있었다. 만일 그를 한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다. 그는 기적을 행하는 자였으며,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의 선생이었다. 다수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중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였다. 우리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고소하였고, 빌라도는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처음에 그를 사랑

한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사회적 배경과 요세푸스라는 인물, 그리고 그의 글에 대한 교회의 반응 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요세푸스의 글이 틀림이 없다는 본문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이다.

비록 필자는 전통적인 견해를 수용하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요세푸스가 서술한 예수에 대한 진정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

다. 우리에게 흥미로운 것은 요세푸스의 글이 변형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예수가 역사적으로 실존하였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요세푸스의 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가 로마법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은 사건과 예수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들로 형성된 집단의 실제 등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에 언급한 예수의 형제 중 하나였던 야고보에 대하여 언급하는 대목도 소중한 역사자료이다. 그는 결국 하였다고 전한다. 우리는 예수와 그의 형제이자 예루살렘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실존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친숙하여진 지명과 인물 등을 요세푸스의 책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먼저 지명을 살펴보자. 갈릴리, 베레아, 사마리아, 유대, 게네사렛, 요단계곡, 사해, 아라비아,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가버나움, 돌레마이, 보디올 등이다. 요세푸스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예세네파 등 유대인 집단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유사하게 설

명하고 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귀족 집안에서 출생하였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약관의 나이도 되지 않은 16세부터 유대인 집단의 특징을 자세히 관찰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요세푸스는 바리새파에 속하여 그들의 전통을 따르게 되었지만, 다른 집단의 신학 사상과도 매우 친숙하였다. 나아가서 그는 열심당의 성격과 특징, 그리고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 성경이 보인다 - 사도행전 11:26; 26:28; 베드로전서 4:16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세 번 기록되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로서, 그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고 실천한 결과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을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였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추종자' 또는 '신봉자'로 간주하고 비하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다시 말하면, 예수에 대한 신앙이 투철한 자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것이다.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란 사실을 증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 자체가 예수와 그가 선포한 복음의 역사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적 믿음'을 사는 것이다.

이메일: covenantcho@yahoo.com

요세푸스가 '고대 유대사'에 쓴 예수 행적이 성경 내용과 일치 복음 이해 못한 자들이 말한 "그리스도인"... 실천적 믿음 중요

하던 자들은 멈추질 않았다. 그는 삼일째 되는 다시 살아서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는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다른 많은 놀라운 일들이 그에 관해 선포했던 일이었다. 그를 따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명명된 이 종족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 성경의 역사성

일부에서는 요세푸스의 예수에 대한 언급이 타인에 의해서 삽입되어 변형된 글이라고 주장한다. 주된 이유는 요세푸스가 기독교인만의 독특한 표현들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당시 사회적 배경과 요세푸스라는 인물, 그리고 그의 글에 대한 교회의 반응 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요세푸스의 글이 틀림이 없다는 본문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이다.

비록 필자는 전통적인 견해를 수용하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요세푸스가 서술한 예수에 대한 진정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

다. 우리에게 흥미로운 것은 요세푸스의 글이 변형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예수가 역사적으로 실존하였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친숙하여진 지명과 인물 등을 요세푸스의 책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먼저 지명을 살펴보자. 갈릴리, 베레아, 사마리아, 유대, 게네사렛, 요단계곡, 사해, 아라비아,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가버나움, 돌레마이, 보디올 등이다. 요세푸스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예세네파 등 유대인 집단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유사하게 설

가정사역 칼럼



결혼이 필요한 이유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아름다운 일이겠지만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또는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묻곤 합니다. 사실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의 결혼생활이 그렇게 본받고 싶은 경우가 아닐 때, 이러한 의문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 실제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고 신경쓰이는 부분도 많을 것입

니다. 과연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혼자서 살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가끔 예외적인 사람들(신부나 수녀, 승려 등)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남자는 여자를 필요로 하고 여자는 남자를 필요로 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여러 가지 필요(심리적, 육체적, 사회적 필요)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필요를 같은 동성에게서 채움을 받을 수 없

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성적인 필요는 상대 이성을 통해서만 채움 받을 수 있기에 성인이 된 남녀들은 짝을 찾게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음란사이트, 외설잡지 등 성적인 자극이 많은 시대에 결혼이라는 제도는 우리를 위한 안전장치라 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결혼이라는 울타리 없이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순결을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결혼이

라는 제도를 거부한 채 동거나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인간사회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녀들이 출산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회 전체가 심각한 위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존 D. 어윈은 4000여년 동안 존속하다 사라진 80종족에 대해 연구했는데 그가 연구한 80종족 모두가, 국가의 멸망은 가정과 성의 타락과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케이스에서 결혼 곧 가정의 연합이 깨어진 후, 한 세대 안에 나라의 멸망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결혼과 출산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곧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고 기르는 가운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

다. 물론 이러한 책임에 대해 아직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여 자발적인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무조항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법적인 의무조항(?)으로 정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혼을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 분명한 결혼관과 가정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과연 결혼이나 가정은 무엇인가? 또한 남편이나 아버지로써의 역할과 책임은 어떤 것인가? 등에 대해 책을 읽거나 예비결혼학교에 참여해보도록 권합니다. 마음속에 가정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내려놓고 새로운 성경적 청사진을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원래 결혼이나 가정은 신화시키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리 아래 살아온 선배 그리스도인 가정을 방문해보고 또한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나눔으로써 그러한 삶의 실재를 경험해보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둘째, 데이트를 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데이트에는 그룹데이트(불특정 다수의 형제자매가 만나는 만남)와 결혼을 전제로 한 1대1 데이트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리트리트나 순례전도, 단기 선교 등의 활동 등이 그룹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1대1의 만남을 갖기 전에 그룹 데이트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나는 누구이며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그리고 나와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연구하고 준비하십시오.

(13면으로 계속)

하나님의 구원계획 GPS CENTER 센타



저자: 라흥채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P.O.Box 610178 Bayside, NY 11361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판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20세기 말과 21세기에 들어와서 문명의 충돌이 이슬람 세계와 서구 세계로 양분시켜 논의되자 미국은 정치적 논리로서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제사회에서 테러를 일삼는 무슬림들을 '무슬림'이 아닌 '테러리스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런 정치적인 논리를 받아들이면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은 무슬림이 아니고 테러리스트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아랍의 무슬림들은 지금 이라크의 IS 대원들이 유대인을 죽이는 일이 있느냐를 묻고 유대인을 죽이지 않는 IS는 분명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모하여 만든 단체라고 했다. 그러나 이집트인 칼림리스트 무스따파는 '테러가 금세기의 전염병'이라는 글에서 이슬람 역사에서 알카와리즈, 암살단(자마아 알하사신) 등은 극단의

초·대·칼·림

김다니엘 (중동 전문가)

IS 누구인가

는 어느 한 가지 사상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상과 억압 받은 감정들이 터져 나온 것이고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금방 구별되지 않게 우리 가까이 다가온다는 점이다.

2014년 여름 이후 이라크와 시

고 국가도 아니라고 한다. 그렇지만 IS의 조직원들은 자신들이 이슬람의 교리를 가장 잘 지킨다고 주장하고 아프가니스탄과 북아프리카(리비아, 이집트 등)까지 세력을 확대했다. 그리고 2014년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15,000여명의 무슬림이 IS 조직원이 되었다. 미

연달아 일어난 사건 즉 살인과 파괴와 손실 그리고 이주민과 난민들을 보면서 그가 아랍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이다. 그의 메시지는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예멘 그리고 이집트와 여러 아랍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무슬림'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아랍 이슬람 국가의 정치인, 왕과 대통령들은 이슬람 국가에서 일어나는 테러는 '무슬림'이 한 짓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시리아에서는 가족들이 거쳐할 곳을 찾아 고향을 등지고 산악지역으로 또는 이웃 국가들로 떠나야 했고 어린이들이 가족을 잃고 무슬림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고 소녀들이 납치당하고 기독교인들이 납치와 살해를 당했다. 싸브리 구네임 이집트 칼림니스트는 애석하게도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이 모두 '무슬림'이었다고 했다.

테러 대처방안 ①치안확보, 자금통로 폐쇄

②종교적 기관/언론 통한 사상적 문화적 처방

“네 국가를 잘 챙겨라” 이집트 알씨시 대통령의 말 잘 새겨야

모델이 있었는데 '이슬람국가'(IS) 조직도 그런 류의 하나라고 했다. 더구나 아랍 이슬람 국가의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은 자국민들이 저지르고 있는 폭력이 단순히 외부의 요인뿐만 아니라 매주 모스크에서 무슬림 설교자가 행한 설교 메시지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고 더구나 초중고 각급 학교의 교과서에 폭력과 테러를 중용하는 내용들이 많다고 하면서 이런 내용을 삭제한 새 교과서 집필을 지시했다.

테러에 대한 대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후 처방이고 다른 하나는 예방인데 전자는 치안을 확보하고 테러에 사용될 자금 통로를 막는 것이다. 그는 후자는 종교적인 기관과 언론을 통하여 사상적이고 문화적인 내용을 통하여 테러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했다. 칼림니스트 무스따파는 테러 현상의 사상적인 처방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영향력과 가장 큰 효과를 준다고 했다. 이슬람 세계에서 테러는 잘못된 사상과 꾸란의 메시지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이들은 항상 소외감과 핍박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타크피르(상대를 무슬림이 아니라고 단정함)가 유행하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테러의 원인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움트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테러



리아에서 IS(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 아랍어로 '다이스')가 칼리프 caliph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들 아랍 무슬림들은 무슬림이건 비무슬림이건 상관없이 무고한 인명을 수없이 살해하고 납치하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하여 대원들을 모집했다.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는 유럽과 아랍 등의 무슬림(비무슬림) 여성들을 위안부가 되도록 하였고 특히 이라크 모술에서는 피인양을 팔지 못하게 하고 병원의 여간호원들이 니갑을 쓰지 않았을 때 병원 마당에서 매질을 했다.

무슬림들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가 무슬림도 아니

국 정부는 알카에다와 IS 조직원들을 테러리스트라고 하고 무슬림이 아니라고 했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IS와 전쟁을 벌이는 것이 이슬람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고 그의 말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버락 오바마와 같은 정치인들의 화법은 이슬람의 본질을 흐려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15년 초 이집트의 알씨시 대통령은 아랍 형제들에게 "여러분의 나라에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집들을 부수고 있습니다"고 했다. 아랍지역 이후 들끓고 있는 아랍 지역에서

아랍 국민에게 당부한 알씨시 대통령의 메시지는 예멘에서 국가 혼란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경고한 말이었다. 아랍 국가들의 거리에서는 살인과 도난과 파괴가 이어지고 있었고 리비아와 이라크, 예멘, 시리아에서도 그러했다.

싸브리 구네임은 아랍 국가에서 살해범은 무슬림이고 무슬림들이 서로를 죽이고 자신들을 파괴하고 가정들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일부 이슬람 종교인들은 이런 무슬림들의 살인과 파괴를 이슬람에서 말하는 종말의 작은 징후로 보고 있다. 이집트 대통령 알씨시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시리아, 피 흘리는 싸움이 계속되는 리비아, 부족과 시아파 호스인들 간의 갈등이 첨예화된 예멘과 같은 일이 또 다른 아랍 국가에서 반복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2015년 2월 말 사우디아라비아는 압둘라 국왕의 서거 이후 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왕국의 혼란을 막는데 온 힘을 다 쏟았다. 아랍 에미리트 역시 치안 확보를 위한 정보부의 활동이 강화되었고 걸프 지역의 보안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있다. 그러므로 알씨시 대통령이 다른 아랍 이슬람 국가의 정상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네 국가를 잘 챙겨라"는 말은 2015년 새해 벽두에 무슬림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말이었다.

영성칼럼



이희병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영광을 저주로 바꾼 헛똑똑이 미리암

물에 떠내려가는 동생 모세를 멀리서 따라가다 바로 공주에게 건지우니 히브리 유모로 엄마를 불러와 바로 공주의 보호아래 모세를 키우도록 어린나이에 순발력이 뛰어나고 담대한 누나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켜낸 동생이기에 유난히 애착이 가는 그 모진 고난을 이기고 이스라엘 대군을 이끌어내는 민족의 대 지도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의기양양 자기 의가 하늘을 찌르듯 컷대가 높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흥해를 건너고 모세와 더불어 여인네들을 이끌고 소고를 쥐고 춤을 추니 내심 자신이 하나된 것처럼 착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먹을 것 잠잘 곳 힘들어지니 자연 높아지는 백성들의 원성을 건디어나느라 힘겨운 모세 곁에서 미리암은 어느 쪽에 있었을지 생각해봅니다. 모세에게 "너만 하나님과 친하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나나 나나 우리나 뭐가 다르나?" 저가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한 것이 매추라기 살건 얻어먹고 큰 재앙으로 많은 백성이 죽고 나서 얼마 후에 일이나 매일 백성들의 원망소리에 시달리는 모세 동생 편에 서서 안타깝기보다는 어려서부터 두뇌회전이 빠르고 순발력에 뛰어난 그녀라면 모세가 하는 일들이 일만 터지면 머리 쳐막고 앞뒤로있으니 일어터질 때마다 조바심 나고 얼마나 답답해 뵈고 속이 터졌겠는가 싶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화난 백성들의 돌벼락 받을 것 같아 불안해하겠는데 사고치는 모세입니다.

계명을 받은 대표자로 계명을 지켜야할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여인과 결혼을 하니 분이 못되는 리더에 대한 불타는 정의감으로 미리암은 불신임 투표를 아무지게 집니다. 분명 옳은 소리이긴 한데 그 비난의 동기가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불평을 해대는 데는 올림픽 선수감들이 화난 백성들인데 건수를 불을 키고 찾아내어 모세를 공격해오는 형편에 다른 이도 아닌 누나가 칼을 던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미리암의 눈에는 모세는 아무도 흔들지 못하도록 방어해주고 세워주어야 할 리더라기보다는 내가 견져내 생명을 빛진 어린 동생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점점 조여 오는 불안한 상황에서 "야야 비켜라. 차라리 내가 나서마. 나도 너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쓰임 받는 분의 종이잖나?"라고 스스로 안수하여 하루 감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니다.

누나조차 대적하니 모세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도 위도 아래도 없이 불평이 올라오는 대로 떠들어대는 이스라엘의 혼란한 상황을 더욱 뒤죽박죽 만들고 질서의 근간을 세워흔들며 민족의 위기로 몰고 가는 극한 상황입니다. 모세를 힘껏 세워도 모자라는 판에 구스여자와 결혼하면 안된다는 옳은 명분으로 지도자를 끌어내리니 어렵사리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가는 하나님의 소명이 풍전 등화로 물고 갑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지도자를 몰고 늘어지면 제일 피해자는 누구일 것인가? 바로 자신입니다. 디단 땅이 꺼지고 자기가 제일 먼저 죽게 되는 것을 알기나하는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힘을 잡고 물고 늘어지자 치면 제대로 서 있을 능력의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옳고 분해도 모든 불평, 원망의 소리를 끄고 조용히 멈추어서서 하나님나라를 세우고 있는지? 나의 옳은 소리가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끌어내림으로 하나님나라를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큰 그림으로 자신의 소위를 늘 살피는 것이 체질화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쭙잖은 나의 뜻을 관철하려는 모든 행보다도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우선순위를 깊이 생각하며 앞장 선 리더더 뒤에서 도우는 자리이건 허는지? 세우는지? 성령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분별의 인내가 사명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모세의 누나라는 것 하나로 그럴 수 있었지만 그 자리를 떠나면 작각일 뿐 저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가다만 인생은 끝나는 미리암입니다. 잘난 아내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세우는가 허는가? 인성은 선택입니다. 어느 자리에 두셨던지 정과 욕심을 모두 십자가에 못박고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거룩하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령주령 넘치는 분수를 아는 조력자 생애되길 소원합니다.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날짜 2015년 5월 1일(금) ~ 12일(화)

시간 새벽 5:30, 오전 10:30, 저녁 7:30

문의 213.382.1450

장소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한인타운 내 카타리나와 8가 코너에 있습니다

강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gstcenter98@gmail.com

방송설교 보기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 튜브 <http://www.youtube.com/user/cbsolomontv>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차 검색



2015년 부흥성회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1~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기도성회 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3일 인천강성교회(이철호목사) 8일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중진목사) 11~13일 (협동동인교회) 남부시할 재정부흥회 16일 과천교회(주현신목사) 18일 예복교회(소진우목사) 22~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일 LA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목사) 2~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9~12일 GST 신학생훈련(34차) 15일 사랑스런교회(배만석목사) 16~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2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3~25일 동촌교회(윤석훈목사) 27일 백석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	1~3일 예수비전교회(박정홍목사) 5일 총신대학교 심령수련회(김지영목사) 9~11일 (협동)대백시찰 연합성회 16~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3~26일 갈멜산강화금식기도원(강화) 29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6~8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13~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0~22일 안산 시민교회(이상관목사) 23일 칼빈대학교, 대학원 체플 26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7~29일 화령교회(이재욱목사)	1~1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8~2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4~27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31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1~4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8~1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15~17일 은양감리교회(노광현목사) 21일 예유교회(류병희목사) 25~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1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3~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6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7~29일 천마산기도원(육광석목사)	3~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9~12일 나사렛성결교단 연합성회 (장소: 나사렛대학교) 17~20일 GST 신학생훈련(35차) (장소: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21~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목회서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회 담임)

교회에는 3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즉 구경꾼, 말꾼, 그리고 일꾼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 교회는 일꾼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도 준비된 일꾼을 찾아서 사용하시고,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 남에게는 배풀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둘째, 똑똑-똑똑하지만 게으른 사람: 머리는 잘 굴리지만 게을러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명부-명칭하지만 부지런한 사람: 이는 것도 없이 열심히 있어서 상당히 위엄을 자초하는 사람입니다. 넷째, 명계-명칭하면서 게으른 사람: 거의 쓸모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섯째, 똑부신-똑똑하고 부지런하며 신앙심이 좋은 사람: 머리가 좋

고, 부지런하며 동시에 신앙심까지 깊어서, 교만한거나 태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정직하고 성경말씀에 순종하므로 결코 욕심쟁이가 아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교회가 꼭 필요로 하는 가장 이상적인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똑똑하고 부지런하며 신앙심이 좋은 '똑부신'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왕의재정학교 김미진 간사는 돈에 대한 '4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

해 말했습니다. 성부와 성빈, 그리고 속부와 속빈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성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도 부자가 되는 것으로 욕과 솔로몬과 아브라함과 같은 유형이고, 둘째, '성빈'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물질과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예수님,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열 두 제자들과 같은 유형입니다. 셋째, '속부'는 세상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세상에 취하여 돈을 마구 쓰며, 돈이 세상의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세하고 할 수만 있으면 빌린 돈을 주지 않고 자신은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유형입니다. 넷째, '속빈'은 한마디로 세상적인 향락에 젖어 돈의 귀중함을 모르고, 마구 쓰다가 결국은 노숙자가 되거나 거지 신세 못 면하는 게으름뱅이들을 말할 수 있는데, 바로 돌아온 탕자, 둘째아

들 같은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당연히 성부와 성빈에 해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시고, 즐지도 않으시고,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의 언행심사와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함께 일할 똑똑하고 부지런하며 신앙심도 좋은 '똑부신'과 같은 일꾼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하므로, 부자가 되었지만 물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성부', '성빈'과 같은 성도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사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이 필요했고,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은사, 능력, 지혜, 물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 후 하나님이 부

르시면 후회와 부끄럼 없이 주실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며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부흥과 성장을 위한 물량주의(Populism)와 물질의 노예로 전락한 황금만능주의(Mammonism)와 명예와 권세를 숭상하는 권위주의(Authoritarianism)에 빠져 세속화되며 신앙심도 좋은 '똑부신'과 같은 일꾼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하므로, 부자가 되었지만 물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성부', '성빈'과 같은 성도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똑부신'과 같은 일꾼, '성부'와 '성빈'과 같은 성도들이 다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선한목자장로교회 PCUSA 탈퇴

공동의회서 95.2% 찬성...ECO교단가입 의결

LA 동부지역 소재 선한목자장로교회(담임 고태형 목사)가 PCUSA를 탈퇴하고 ECO교단에 가입하기로 의결했다.



선한목자장로교회 공동의회결과에 대해 고태형 담임목사가 설명한후 당회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제공선한목자장로교회)

본 교회는 지난 3월 22일 745명이 참석한 공동의회에서 찬성 709, 반대 33, 무표 3표(95.2% 찬성)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교단 탈퇴 및 ECO(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교단으로의 가입을 의결했다. 미국장로교회(PSUSA) 샌가브리엘노회(San Gabriel Presbytery) 소속인 선한목자장로교회는 지난 1975년 설립된 Monterey Park에서 사역하다가 1995년 Rowland Heights지역으로 이전해 신실하게 지역 사회에서 구원의 방주로서 복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왔다. 그러나 소속 교단인 미국장로교회가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며, 성경을 왜곡하고, 심지어 결혼의 정의까지 남과 여에서 두 사람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보며 3년 전부터 교단 탈퇴 절차를 진행해왔다.

Trust 조항을 이용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GDP(Gracious Dismissal Policy, 은혜로운 결별 정책)를 만들어 재산을 갖고 교단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본 교회 역시 이 GDP의 가이드 라인대로 협상을 진행해 노회와 합의에 이르러 작년 3월23일 공동의회를 열고 91%의 찬성으로 합의문의 승인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노회는 GDP내용을 추가하고 개정해 탈퇴를 더 어렵게 만들고, 합의 사항을 반복하며 재산을 갖고 교단을 떠나는 것을 힘들게 만들었다. 고태형 목사는 "이미 작년 공동의회 때 91% 찬성으로 교단탈퇴를 의결한바 있으며 ECO에 가입신청을 하고 인터뷰도 마쳤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장로교회에서 결정된 동성결혼 합법화로 인해

이반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이 더 이상 교단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음을 나타내 줬다"고 설명하고 "본 교회는 3월 25일부로 미국장로교회를 탈퇴하게 됐다. 교단탈퇴에 맞춰 ECO에 가입하게 될 것이지만 ECO교단에서 추가 인터뷰 등 요구사항이 없게 되면 ECO가입에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 밝혔다. 교단탈퇴로 인해 예상되는 재산권문제에 대해서 고 목사는 "아직 PCUSA 교단측의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현재 건물에서 예배는 계속 드려지게 될 것"이라 언급하고 "PCUSA에서 본 교회 건물소유에 관한 입장에 맞춰 당회와 이사회와 협의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한인기독교원로목사회 초청 및 (사)한기부 미주지부 대표회장 취임예배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한기부 미주지부 지용덕 대표회장 취임예배 24일 남가주한인기독교원로목사회 월례회 겸해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한기부)의 미주지부 대표회장에 지용덕 목사(미주양곡교회)가 취임했다. 46년 전 창립된 한국교회의 순수부흥운동을 주도했던 한기부는 현재 미주에서도 위상턴DC와 LA 등지에 지부를 두고 있다. 24일 미주양곡교회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취임임식 도중, 참석자들은 한국과 미국의 신앙적 위기를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미국교회의 동성결혼 문제와 한국교회의 신뢰도 하락 등을 지적하며, 한기부가 본연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최영식 한국 대표회장은 "미주지

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창대하게 일어날 것"이라 기대했다. 지용덕 미주 대표회장은 "부족한 재계 큰일을 맡겨주심에 감사와 부담이 있다. 미주지부 대표회장이 된 것에 상당한 책임감을 느낀다. 좀더 집중하고 기록한 사명감가지고 무릎 꿇는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남가주한인기독교원로목사회 초청 월례회를 겸해 개최됐으며, 노재룡 원로목사회회장 및 여러 임원들, 김병용 미주북음주의장로교 총회장, 김기동 OC교협회장, 백지영 남가주목사회장, 고재원 연세대동문목사회장, 변영의 한인커뮤니티단체장협의회 대표회장, 류당열 교협경증회장단 회장, 한기형 감독 등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또 최영식 대표회장 외에 송일현 경증대표회장과 김희복 미주본부장, 현종각 위상턴본부장 등 한기부 인사들도 참석했다. (박준호 기자)



임마누엘 선교교회 초청 남가주한인기독교원로목사회 예배에서 강영창 목사가 축도하고 있다

임마누엘선교교회 초청 남가주기독교원로목사회 예배 신임 회계에 신원철 목사, 부회계 진광호 목사 선임

남가주한인기독교원로목사회(회장 노재룡 목사) 초청 예배가 3월 26일 오전 11시 임마누엘선교교회(담임 류종길 목사) 초청으로 개최

됐다. 회장 노재룡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이기수 목사가 기도했으며 박용석 목사가 성경봉독을 했다.

이어 류종길 목사가 '갖고 싶은 사랑'(눅 :36-5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설교를 마친 후 '임마누엘 선교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통성기도를 했다.

이어 이상현 목사가 '조국과 미국을 위해', '세계평화와 복음화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특별 기도를 인도했으며, 강영창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남가주한인기독교원로목사회는 그동안 회계로 수고했던 이국봉 목사가 개인사정으로 사임해 부회계 신원철 목사를 회계로, 진광호 목사를 부회계로 선임했다. 남가주한인기독교원로목사회 4월 월례예배는 4월 9일(목) 오전 11시 토마스선교교회(담임 최경옥 목사)에서 갖게 된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신학대학교, 롬버스, 와이넷 재단이 함께하는 가정폭력 전문상담자 40시간 기본교육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남가주신학대학교 한국어프로그램디렉터 이사무엘 교수가 설명하고 있다

가정폭력 전문상담 40시간 기본교육 남가주신학대 등 주최 4월 13-17일 나성영락교회

남가주신학대학교(Southern California Seminary) 총장 게리 쿵스 박사)와 롬버스(Rhombus 소장 줄리 헤이든 박사), 그리고 와이넷 파운데이션이 함께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가정폭력 전문상담자 워크샵을 개최한다. 장소는 나성영락교회(은혜관)이며 오는 4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육은 워크샵으로 열리게 되며 가정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물론 본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의 치료개입에 적절한 기본기를 갖추게 된다. 남가주신학대학교 한국어프로그램 디렉터인 이사무엘 교수는 "워크샵은 한인커뮤니티를 위해 남가주신학대와 롬버스 주최로 열리며 와이넷의 후원으로 열리게 됐다"고 언급하며 "샌디에고에 위치한 남가주신학대가 LA한인들을 위해 한인타운 인근에 LA사이트를 개설하고 상담심리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해왔다. 이번 워크샵은 남가주신학대와 롬버스가 한인사회를 위해 접근하고자 와이넷이 교량역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반 워크샵은 가정폭력 전문상담자가 되기 위한 자들과 동 계열학과에서 학업에 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비용역시 상담사지원자들은 450달러, 학생은 350달러를 내야 한다. 그 외에 자격증취득과는 상관없이 워크샵 참여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은 교재비 40달러만 내면 된다. 롬버스 소장이자 본교 상담심리학과 학장인 줄리 헤이든 박사는 "단지 이번 워크샵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던 자들이 추후 전문상담자가 되고자 한다면, 별도의 교육을 받을 필요 없이 소정의 비용과 함께 40시간 이수를 한 근거만 제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샵은 40시간 이수자들에게는 소정의 수료증을 발급하게 된다.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들은 추후 그룹테라피 등 실습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소정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들에게는 상담그룹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이사무엘 교수는 "한인커뮤니티에 가정폭력에 대한 이슈와 문제가 있는데 무시하고 덮으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을 오픈해서 교회와 사회단체들이 공유해

나아가야 한다. 미국교회의 경우 교회마다 알코올중독자들을 위한 서포트 그룹, 그리고 싱글맘, 암환자, 가정폭력 등에 대해 지원하는 그룹들이 있다. 하지만 한인교회들은 이들에 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가 매우 드물다. 이번 워크샵을 기점으로 많은 교계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323)488-5800 (박준호 기자)

지금 목사이고 교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 기록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역할 혼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주의를 기울여 보자. 우리 모두는 아이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부모가 된다는 것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분명 다른 일이다. 역할을 혼동해서는 곤란하다. 교회 내에서의 관계들은 영적으로 지도하고 지도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다른 역할, 때로는 충돌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목사들은 종종 당회나 운영위원회의 어떤 교인들을 친구로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목사의 사례금을, 그리고 때로는 목사의 징계나 임기를 결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를 영적 지도자나 선생으로 바라보거나, 우리가 감독하는 역할을 가진 사람들과 진정으로 아무 꺼리낌 없이 호혜적인 우정을 나눌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2. 우리는 진심으로 공동체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인정하기 더 어려운 문제다. 우리 목사들에게 공동체가 없는 것은 우리가 그 가치를 진정으

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해낼 만큼 충분한 공동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들이 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적지만 정직하게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가까이 그렇게 하려 하지는 않는다. 이게 전부 아니다. 우리가 진정한 친구관계를 원치 않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약해지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의 속을 감추고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약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목사로서 남을 돕는 데는 익숙하지만 만약 남이 우리를 돕는다면 불편하게 느낄 것이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편안함을 느낀다. 우리 스스로가 부족한 사람이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약해지는 힘든 순간은 오게 마련이고, 진정한 우정이 만들어질 수 있

는 순간은 바로 그런 약함이 찾아왔을 때이다. 내가 치료와 회복을 위해 어떤 상담전문가가 이끌었던 남자들 모임에 나갔을 때 일이다. 나는 그 모임에서 내가 씨름하고 있던 문제나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주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저 반들거리는 "성숙하고 영적인" 측면만을 드러내 이야기하고 있는 나 자신을 깨달았다. 내가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씨름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일들에 관해서 정직해지는 용기를 가지는 것. 이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의 하나로 계속 남아 있다. 나는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 나는 "궁색한" 느낌을 정말 싫어한다. 사람들이 오로지 내 생각과 내 인생의 최종 편집본을 보도록 하는 데만 신경을 써왔고, 그리고 제법 잘 해왔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한 모든 것이 아주 잘 편집된 모습persona이라면, 당신은 추종자나 팬은 많겠지만 친구는 별로 없을 것이다. 약함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들을 찾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16면으로 계속)

동부교계 기사판



송정미 카네기홀 콘서트 어린이 합창단원 모집
송정미 카네기홀 콘서트와 함께 하는 어린이 합창단원을 모집한다.

One Body(성경읽기 운동) 설명회
One Body(성경읽기 운동) 설명회가 4월 9일(목) 뉴욕수정교회(담임 황영송 목사)에서 열린다.

뉴욕호신장로교회 설립 31주년 기념행사
뉴욕호신장로교회(담임 문석오 목사)가 설립 31주년을 맞아 음악회와 세미나 등 행사를 개최한다.

퀸즈중앙장로교회 이름 변경
퀸즈중앙장로교회(담임 전광성 목사)가 교회 이름을 '하크네시아(HaKnesiah)교회'로 바꿨다.

여목연 제6차 북미주연합 컨퍼런스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전희수 목사)가 주최하는 제6차 북미주연합 컨퍼런스가 6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잭슨스포인트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다.

뉴욕원로목사회 신임회장 홍상설 목사

24일 퀸즈한인교회서 13회 총회...교협위탁 특별헌금

대뉴욕지구한인원로목사회(회장 소의섭 목사)가 24일 제13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홍상설 목사를 추대했다. 부회장으로는 박성만 목사를 선출했다.
오전 10시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열린 1부 예배는 홍상설 목사의 사회로 장승철 목사 기도, 목사합창단 특송, 이규섭 목사 설교, 소의섭 목사 찬양집례, 교협 회장 이재덕 목사 축사, 김용욱 목사 축사로 진행됐다.
신임회장 홍상설 목사는 "소의섭 목사 등 기존의 회장단이 뉴욕원로목사회를 잘 이끌어주셨다"면서 "원로 목회자들 간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힘쓰고 섬기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임원선거 후 회칙개정과 감사선출 등은 신임 임원에게 맡기기로 하고 폐회했다. 예배 중 헌금시간은 특별히 뉴욕교협을 위한 헌금시간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또 이날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이규섭 목사는 설교를 통해 뉴욕교계를 위해 든든한 영적 버팀목이 되는 원로들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다.
회원들은 총회 이후에는 퀸즈한인교회에서 마련한 오찬을 나누면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뉴욕원로목사회는 다음 월례예배는 4월 16일 뉴욕한인제일교회(담임 박효성 목사)에서 갖는다.
(기사제공: 뉴욕원로목사회)

뉴욕 이단대책협 회원교회에 이단경계문 발송

구원과 박옥수 뉴욕서 성경세미나 열어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재덕 목사) 산하기관인 이단·사이버대책협의회(회장 유상열 목사)가 지난 24일 뉴욕교협 산하 각 회원교회에 이단경계 공문을 발송했다.

뉴저지교협 2015년 부활절연합예배 지역별 상황발표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병준 목사)가 2015년 부활절새벽 연합예배 지역별 상황을 발표했다.
총 14지역 중 13/14지역은 중부와 남부뉴저지로 나눠 각각 진행하며 1지역부터 12지역까지 뉴저지교협이 관할한다. 지역구분과 장소 및 설교자는 다음과 같다.
△1/팰리세이드교회/장동신 목사
△2/만나교회/김동욱 목사
△3.5/높은뜻교회/김홍채 목사
△4/뉴저지연합감리교회/안성훈 목사
△6/참빛교회/이우영 목사
△7.8/주예수사랑교회/정성만 목사
△9/소망의교회/이이철 목사
△10/성은장로교회/김하용 목사
△11/영광감리교회/조문선 목사
△12/사랑의글로벌비전교회/이성일 목사.
(유원정 기자)



미주한인여성목회협의회 정기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5월/목회자의 날 · 6월/컨퍼런스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 정기예배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전희수 목사) 3월 정기예배가 지난 24일 뉴욕퀸즈교회(담임 김수경 목사)에서 드려졌다.
이날 1부 예배는 나명자 목사(회원관리분과)의 사회로, 박드라 목사(기도분과) 기도, 남승분 목사(성경봉독), 김수경 목사(음악분과) 말씀, 여목협중앙단 특별찬송, 심화자 목사(친교분과) 봉헌기도, 김정숙 목사(종무) 광고, 권계덕린 목사(서기) 합심기도, 전희수 목사(회장)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2부 예배는 '이것을 내가 믿는다'(요11:17-44)는 제목의 설교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자고 강조했다.
예배 후 회원들은 합심기도를 통해 6회기 주요사업으로 예정된 5월 목회자의 날 행사와 6월 캐나다 토론토 컨퍼런스를 위해 기도했다. 2부 사역의 나눔 시간에는 이은희 목사(NJ지역 협동종무, 푸른하늘교회)의 Well Balanced Leadership 이란 제목의 강의를 들었다.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는 전희수 목사의 회장취임을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정기예배를 드려주며 미주 내 한인여성들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해 정진하고 있다.
(기사제공: 미주한인여성목회협의회)



뉴욕원로목사회 13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씨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주제로 맨해튼에 있는 버록 칼리지 매송홀에서 세미나를 갖는다.
이단사이버대책협의회는 "한국의 주류교단들로부터 이단으로 판정 분류된 구원파의 박옥수씨가 강사로 열리는 집회"라며 "섬기시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광고해주시고 이웃들에게도 이를 알려 현혹되지 않도록 경계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뉴욕전도협의회 회장 이취임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협력하여 선을 이뤄 나갑시다"

뉴욕전도협의회장 이취임예배, 회장 오태환 목사

뉴욕전도협의회가 지난 25일 회장 이취임예배를 드리고 제 11회기 오태환 회장단 출범을 알렸다. 오태환 목사는 4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 새 임원으로 △고문 김수태 목사, △교섭실 목사 △종무 현영갑 목사 △총회 하정민 목사를 선임했다.
오태환 목사(뉴욕은총장로교회 담임)는 "전도는 기독교인들이 꼭 해야 할 사명임을 알고 다시 회장을 맡게 됐다"며, "전임 하준희 회장이 그동안 부진했던 전도협의회를 맡을 줄이 됐다. 거룩한 부담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회원들을 대거 영입하며 전도에 포커스를 맞춰 나가겠다"고 말하고 "영혼구원! 전도운동! 협력하여 선을 이뤄 나갑시다" 구호를 외쳤다.
1부 예배는 김영환 목사 사회로 기도 지인식 목사, 특별찬양 뉴욕남성목회합창단, 설교 김석형 목사, 헌금기도 하정민 목사, 헌금특송 조애실 사모, 축도 김승희 목사, 광고 현영갑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석형 목사(퐁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는 "사명자의 길"(행 20:22-2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두 질문의 답을 잘 새겨 하나님께 기뻐하시라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전했다.
김 목사는 "직분을 맡으면 부담이 커진다. 그러나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간다"며, "구약과 달리 예수님은 섬기는 지도자 상을 말씀하시고 본을 보이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깨닫는 삶으로 살아가는 지도자가 되기 바란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전도의 삶을 살자"고 강조했다.
2부 이취임식은 현영갑 목사 사회로 시무기도, 김원기 목사, 이민사 하준희 목사, 최원자 오태환 목사 축사, 이재덕 교협회장, 전희수 미동부목회자대책기구 회장, 권면 박상일 목사, 전임회장에 감사패 증정, 특별광고 김수태 목사, 만찬기도 양승호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뉴욕전도협의회와 전도대학교를 시작한 김수태 목사(뉴욕어린이양교회)는 "전도협의회는 각 교회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모든 선교단체를 영입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밀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뉴욕전도협의회는 11회기 사업으로 △뉴욕전도대학교와 함께 매월 전도의 날을 선정해 노방전도 실시 △4월 14일 지역교회 살리기 운동 세미나 △5월 새생명 전도훈련 세미나 △6월 유회 △10월 전도교회연합부흥성회 △12월 송년모임가족 수련회 등을 발표했다.
(유원정 기자)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churches like 뉴욕세인트마리아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etc.

“믿음의 역사” 이영훈 목사초청 LA축복성회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주관, 7명 목사안수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초청 LA 축복성회가 3월 25일 오후 7시30분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열렸다. 진유철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성회는 강태욱 목사(북미총회 직전 총회장)의 대표기도에 이어 김기동 목사(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회장)의 축사, 이만호 목사(북미총회 총회장)의 감사소개 및 환영사에 이

어 이영훈 목사가 ‘믿음의 역사’(히 11:1-6)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1960년대 할아버지의 믿음을 통해 젊은 조영기 목사를 만나게 된 일화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 답으로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장까지 하나님은 일관되게 믿음의 사람과 같이 일하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믿음의 유형 4가지를 소개했다. 첫째는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이다”며 “믿음은 내가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이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을 받게 되며,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다. 둘째는 “믿음은 말씀 위에 서는 것이다”며 “세상의 음성을 듣지 말고 성경말씀을 죽도록 묵상함으로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배 중심이 말씀중심이라면서, 이단들의 횡포를 지적했다.

이 목사는 “이단들은 영혼의 도둑들이며, 이단에 한번 빠지면 헤어내기 힘들기 때문에 오직 말씀중심,

에배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는 “믿음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며 불안이나 늘 안된다고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불가지란 없다는 것을 믿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한다”며 성령체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성회는 오전 8시 30분부터 북미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순복음 소속 목회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으며, 오전 11시부터는 이영훈 목사가 인도하는 북미총회 목사안수식이 거행됐다. 안수식에는 서미수, 추정래, 김승수, 박찬홍, 이재훈, 진현호, 마사키T 등 7명의 전도사가 목사안수를 받았다.

(박준호 기자)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주관 LA축복성회에서 이영훈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파라과이 차코지역에 정수기를 보내기 위해 마련된 워터투게더 콘서트가 동양선교회에서 열렸다.



생명의전화 제19기 상담봉사원 훈련세미나 수료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생명의전화 상담봉사원 훈련세미나 수료

제 19기 감사예배...50시간 인턴십 마쳐

생명의전화(원장 박다윗 목사)는 제19기 상담봉사원 훈련세미나 수료 감사예배를 3월 26일 오후 7시 웨스턴양로보건센터에서 가졌다. 박다윗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수료감사예배는 이용덕 목사(생명의전화 운영위원장)가 기도, 제19기 상담봉사원 회장 김순애 집사가 성경봉독했으며 이주철 사관(구세군 나성교회 담임)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막2:1-12)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주철 사관은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지만 실망하고 좌절한다. 그것은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다. 그러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고 우리는 단지 인도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사관은 “살면서 포기하거나 멈춰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할 때다. 그것이 아니면 포기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으신다. 끝까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상담원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50시간 이상 상담인턴십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19기 상담봉사원들이 선서를 했다. 이날 예배는 이주철 사관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산타클라라 행복교회 ‘행복 부활 축제’ 개최

산타클라라 행복교회(담임 오상준 목사)가 부활절을 맞아 지역 한인들과 함께하는 ‘행복 부활 축제’를 4월 4일(토)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놀이기구, 게임 등 놀거리와 피자, 치킨, 팝콘 등 다양한 음식이 제공된다.

▲문의: (408)761-4707, SJoyfulchurch.com

새누리교회 이동원 목사 초청부흥회

새누리교회(담임 손경일 목사)는 한국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목사 초청 부흥회 ‘힐링 그리고 블레싱’을 주제로 4월 10일(금)부터 12일(주)까지 개최한다. 시간은 금요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전 7시와 오후 7시, 주일 오전 9시30분, 오전 11시30분.

▲문의: (650)210-0000



와이낫파운데이션 정루미 카운셀러가생이 강의하고 있다

‘분노, 조절과 극복’ 주제로

LA카운티정신건강국 세미나, 강사 정루미

LA카운티정신건강국 세미나가 3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미주평안교회에서 ‘분노, 조절과 극복’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정루미 카운슬러(와이낫 파운데이션)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열린 세미나는 최근 한인 타운과 인근에서 발생한 여러 총기사건 및 타살·자살사건 등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실습을 하며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카운슬러는 “분노의 종류에는 돌발성 분노, 잠재적 분노, 생존형

분노, 체념성 분노, 수치심에서 비롯된 분노, 그리고 버림받음에서 비롯된 분노가 있다”고 설명하고 “분노가 치밀어 육과 나갈 때, 혹은 그 직전에 알아차리는 것이 키포인트다. 분노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일단 멈춰서 분노가 생긴 이유에 대해 한번 되짚어 보며, 분노를 표현하는 것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고 잃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부 청장년층 대상, 2부 간증집회

남가주 새언약교회 2015 새생명전도축제

남가주 새언약교회(담임 강양규 목사)는 지난 3월 29일 “2015 새생명전도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새생명전도축제는 2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40일 동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2회에 걸쳐서 진행됐는데, 1부는 오전 11시에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곳 뉴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소개하고, 예배의 마지막 시간은 구



남가주 새언약교회 2015 새생명전도축제에서 설교하고있는 강양규 목사

원초정을 통해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파라과이 차코 지역에 깨끗한 물을

원하트 미니스트리 주최 워터투게더 콘서트

원하트미니스트리(대표 피터박 목사)가 주최한 워터투게더 콘서트가 3월 28일 오후 6시30분 동양선교회(담임 박형은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콘서트에서 피터박 목사는 “많은 분들이 워터투게더의 미를 알아주셔서 감사하다. 한 번의 콘서트로 그치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고 나뉘고 전파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찬 전도사는 “워터투게더 콘서트에 재능 있는 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연합해 한 영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어 좋았다. 오늘 콘서트를 시작으로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미 파라과이의 인디언 마을에 깨끗한 물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콘서트는 한국의 대표적인 찬

양사역자이자 CCM가수인 강찬 전도사와 한인 2세로 구성된 합창 찬양팀 AMP 무브먼트 등이 공연했고 존 최 목사(달라스 글로벌바베스트교회 담임, JAMA 음악디렉터)가 설교했다.

공연 중간마다 Water Together 다큐멘터리 등의 다양한 영상이 소개됐으며 원하트미니스트리에서 이번 콘서트를 위해서 만든 “물이 변화여”를 다같이 합창하면서 공연을 마쳤다.

이날 콘서트 수익금은 파라과이 차코지역에 99.99%의 정수 기능을 갖고 있는 소형정수기를 보급하고 있는 오픈핸즈(대표 조병희 집사)에 전액 전달된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생 기도회: 오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859 Knoll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전 11:30 수-금오 예배: 오후 7:30 새 생 기도회: 오전 9:30(월-토) lafg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9-4498, Fax: (323)919-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새 생 기도회: 오전 5:30(월-토),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213)388-7101, Fax: (213)388-658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www.youngc.org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 생 기도회: 오후 5:30(월-토) 새 생 기도회: 오전 6:00(토) Tel: (323)466-1234, Fax: (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영아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대학: 오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mban.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EM): 오후 1:3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8:00 새 생 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남가주리디교회 담임목사: 김요셉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목 요 예배: 오후 7:00 새 생 예배: 오후 6:00(월-토) www.scrdm.org Tel: (213)215-8523 / Fax: (213)877-1183 1838 S. Western Ave., L.A., CA 90018	남가주사랑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20 주일 2부 예배: 오전 9:2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20 월 오 이 예배: 오후 11:20 영아권(영소-KDC, 영림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9:30 새 생 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kc.org	등문교회 담임목사: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새 생 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gkpc.org	동양선교회 담임목사: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전통예배: 오전 9:30 3부 영아예배: 오전 11:00 4부 영아예배: 오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 생 예배: 오전 7:00(월-토) Tel: (323)466-1234, Fax: (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포를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수요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Fax: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HB, L.A., CA 90033	드림 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9:30 영아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 생 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626)793-0800, 082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 생 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380-8377, 8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45 새 생 기도회(화-토): 오전 6:00 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00 새 생 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Tel: (310)749-0577 3521 Lomita Bl., #202-A Torrance CA, 90505	베델안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 예배: 오전 7:15 주일 2부 예배: 오전 9: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2:00(대학부) 성령강림회: 오전 11:00 대학예배: 오전 1:00 토요일예배: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beb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7:00(대학부)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 생 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남가주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 생 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학교: 오전 6:30(토) 주일학교: 오후 3:00(토) www.samsungchurch.org Tel: (562)690-8000, Fax: (562)690-8044 501 S. Los Angeles,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8:00 새 생 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 생 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전 6:00(토)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 생 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일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전 11:45 새 생 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강림회: 오후 8:00 새 생 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새 생 기도회: 오전 3:00(월-토)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 생 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vic.org	코나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새 생 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tc.com / e-mail: pastor@cornestonetc.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인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아) 장미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ence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다양성 속 일치 다지자' ...2015 부활절연합예배

'2015 부활절연합예배'가 부활주일인 4월 5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일제히 드러진다. 올해는 주요 교회연합기관들이 함께 준비해 드리던 예년과 달리 지역별로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특징이다. 한국교회의 연합·일치 정신의 회복을 염원하면서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다져보자는 취지에서다.

◇희망·위로·섬김... "다양한 부활신앙 표현 기회될 것"=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연합체인 2015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연합예배준비위·대표 회장

로 마무리 작업 중"이라며 "한국교회 모두가 공유하고 부활신앙을 표현하는 예배와 행사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

아보고 삶으로 실천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예배 취지를 설명했다. 박종순(총신교회 원로) 목사가 설교하며, 이날 헌금은 소외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고난함께)'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위로하는 예배를 준비 중이다. 설교는 박인환(화성교회) 목사가 맡는다. 부

서울 비롯 전국 곳곳서 지역별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이신웅 목사는 '그리스도의 부활, 화해와 통일로'를 주제로 다음달 5일 오후 3시 서울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예배를 드린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백남선 목사가 설교한다.

연합예배준비위 위원장이자 예장통합 사무총장인 이홍정 목사는 연합예배 참여 교단 총무들을 대상으로 가진 설명회에서 "현재 행사 준비는 90% 정도 완료된 상태

표회장 이영훈 목사의 부활절 예배는 '섬김'에 초점이 맞춰졌다. 부활주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분당에서 드려지는 '부활절 특별감사예배'에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장애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자 등이 초청될 예정이다. 이영훈 목사는 "그동안 한국교회의 부활절 예배가 연례행사처럼 드러져왔다"면서 "올해는 부활절 준비 과정에서 소외계층을 돌

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울산 등 광역시를 비롯해 시·군·구 단위 지역에서도 해당 지역 기독교연합회 등을 주축으로 한 부활절 연합예배가 예정돼 있다. 주로 체육관이나 도심 광장, 음악당, 대형 교회 등 수천명에서 수만명까지 아우를 수 있는 곳에서 진행된다.

◇도보행진·세족식·칸타타까지...풍성한 부대행사=올해 부활

절 예배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드러지기 때문에 세월호 관련 행사들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세족 목요일인 4월 2일, NCKK는 전남 진도의 석교삼거리에서 팽목항까지 10km 남짓한 구간을 '침묵 도보행진'한 뒤 세월호 유가족들의 발을 씻기는 행사를 진행한다. 성금요일인 4월 3일 오전 9시30분에는 팽목항과 세월호 침몰지점 두 곳에서 동시에 예배가 진행된다. 세월호 침몰 지점 해상에서는 60~80여명이 4척의 배에서 찬송 예배를 드린다.

교회별로 준비하는 문화행사도 돋보인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성금요일인 3일 오후 9시 교회 대성전에서 '부활절 칸타타'를 선보인다. 지구촌교회(진재혁 목사)는 전문인선교도임인 '미술인회' 주최로 '해피 이스터 그림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이스터 트리' 캠페인도 확산되고 있다.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는 각 교회마다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고통에 동참하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성결교회 3개 교단 '단계적 통합론' 제시

한성연 지도자대회, 4단계 과정 거쳐 통합 완성

한국성결교회연합회(한성연·대표회장 이신웅 목사)는 26일 경기도 부천 서울신대에서 '제5회 한국성결교회연합회 지도자대회'를 열고 성결의 복음 아래 하나가 되자고 다짐했다. 박명수 서울신대 교수는 세 교단이 하나로 통합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한성연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교회(나성) 등 3개 성결교단의 연합기관이다. 기성과 예성은 국내 자생교단으로 본래 하나였으나 NCC 가입 문제로 해방 이후 분열됐고 나성은 미국 나사렛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성연은 지난 1월 신년례회에서 세 교단을 합쳐 한국성결교회로 만들자는 제안을 받아들여 추진키로 했다.

박 교수는 '한국성결교회의 통합과 그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통합을 구체화하려면 4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1단계는 '연합을 구제화하려면 4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1단계는 '연합을 구제화하고 교단 간 목회자 이동을 쉽게 만드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2단계는 '부분적 통합'이다. 해외선교사업과 신학교 등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다. 3단계는 '각 교단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예수교연합성결교회' 또는 '한국기독교연합성결교회' 등 하나의 교단 이름 아래 통합하는 것이다. 4단계는 '실질적 통합'이다.

박 교수는 "이런 과정은 단시간에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통합을 주관할 전담기구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연구와 토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한성연 대표회장인 이신웅 기성 총회장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란 설교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 주장하고 강조하신 한 가지를 꼽으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며 "성결교단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성결교단을 크게 쓰실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회장인 이종복 예성 총회장은 축사에서 "한성연이 한마음 한 뜻이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한성연이 선도하자"고 말했다. 공동회장 한기동 나성 총회 감독은 축도를 했다.

예정합동 "총회 운영 매뉴얼 만들자"

정책과제 발굴 3차 공청회 "선거 때 정치적 힘 낭비 지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은 26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총회회관에서 '총회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3차 공청회'를 열고 총회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발제자로 나선 심삼성 전 총신대 교수는 "은급재단 사건과 총회·총신대 간 힘겨루기에서 볼 수 있듯

총회가 정치적인 힘에 계속 휘둘리고 있다"면서 "정치적 힘의 남용과 부패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하루빨리 정책 매뉴얼을 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헌법 정관 내규 등 총회, 노회, 교회, 교단산하 주요 기관 회원이 지닌 의무와 책임을 명시한 백서를 만들어 거기에 나온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문화를 정착시킬 때 총회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정합동 교단은 매년 임원 선거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다"며 "이 교회가 목사를 앓고 있다"면서 "총회장과 임원에 집중된 정치적 힘은 공유해야 하며, 총회 파회 후 전문 행정가인 총무는 매뉴얼에 따라 총회본부를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예정합동 내 다수의 교회는 재산을 유지재단에 가입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문제가 생

기면 교단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전국 교회의 모든 재산을 교단 산하 고정재산으로 등록해 교회 재산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봉생 총회정책연구소 운영위원장은 "세 차례 공청회에서 나온 정책은 취합·선별해서 정책연구소 연구과제로 선정한다"면서 "전 총회장, 노회장 간담회 등을 거쳐 오는 7월 총회에 공식적으로 정책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 남한 목사 등 2명 간첩 혐의 체포

교계 "김 목사, 2003년부터 중국 단둥에 파송"

북한이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고 주장한 김국기(61)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총회장 조갑문 목사) 소속 목사인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교계는 김 목사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으로 급속 냉각됐던 남북관계에 북한이 우리 국민 2명 추가 억류라는 악재가 추가됐다. 2013년 10월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까지 포함해 북한 억류 국민이 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부담이 더욱 커진 형국이다.

예정합동중앙은 총회회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에 억류된 2명 중) 김 목사는 2003년 중국 단둥에 파송됐다"며 "김 목사는 단둥에서 선교활동을 했을 뿐 간

첩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목사는 단둥에서 탈북자 센터를 운영하며 탈북자와 꽃제비, 조선족들을 돌본 선교사"라며 "북한의 조치는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석방을 촉구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김 목사는 단둥에서 선교 중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도 북한이 우리 국민 2명을 '간첩 혐의'로 억류한 것과 관련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즉각 송환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에서 "사건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 김 목사와 최춘길(56)씨를 억류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두 사람을 지체 없이

송환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북한 통일전선부에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은 접수를 거부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반공화국 정파·모략행위를 감행하다 적발 체포된 괴뢰 정보원 간첩 김국기, 최춘길의 국내외 기자회견이 26일 일인민화광전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들이 국경원에 매수돼 북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활동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김 목사와 최씨에 대해 "미국과 괴뢰정보기관의 배후 조종과 지령 밑에 가장 비열하고 음모적인 암살수법으로 최고 수뇌부를 어찌보려고 날뛰 극악한 테러분자들"이라고 비난했다. 보위부는 이들이 중국 현지인과 화교, 북한의 사사여행자(보파리상) 등을 첩자로 포섭해 돈을 주고 비밀정보를 수집했다며 "빛 쫓

듯 때문에 간첩질을 하고 있는 외국 국적자들에게도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이 단둥에서 국경원에 매수돼 간첩 활동을 했으며, 북한 지도부를 비난하는 선전물을 제작·유포하고 북한 화폐를 위조했다고 말했다. 북한에 '테러지원국' '위조지폐 제조국'란 누명을 씌우고자 간첩 사건을 조작하고 가짜 위조 달러를 만들었다고도 했다. 국경원을 거론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정치 상황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중국을 향해 북·중 접경지역에서 남한 정보기관의 활동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의 성격도 포함되기로 보인다. 이에 국경원 관계자는 "두 사람은 국경원과 관련이 없으며 기자회견 내용도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주님, 도와주소서...기도가 역사 바꾼다"

대학총장 조찬기도회 23개 대학 총장 관계자 참석

"주님, 대학 캠퍼스와 이 나라가 세계복음화의 모판이 되게 하소서."

27일 오전 7시30분 서울 노원구 한국성서대학교 밀알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대학총장 조찬기도회(회장 김명용 장신대 총장).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대학의 총장들은 말고 있는 직위를 모두 내려놓고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캠퍼스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이날 모임에는 길자연 총신대, 김명용 장신대, 신민규 나사렛대, 최갑중 백석대, 김용관 부산장신대, 최성재 동양대, 유석성 서울신대, 채수일 한신대, 이억범 한영신학대 총장 등 23개 대학 총장 및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길자연 칼빈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도회에서 강우정 한국성서대 총장은 '복음전도자'(고전1:14-1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정부의 지원을 더 받기 위해 '성서대'라는

학교 명칭을 고민했고 기독교 정신을 저버린 날들이 있었다"고 고백해 참석자들을 숙연하게 했다. 강 총장은 "성서대는 앞으로 기독교 학교라는 건학 목적에 충실하고 한국교회 성장을 위해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성현 개신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대표기도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노력하면 성과를 인정받는 공평한 사회가 되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이심을 고백하는 사회가 되게 해 달라"고 말했다.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통일" 한국교회와 영성회복" 한국기독교대학의 발전" 등의 기도제목으로 기도가 이어졌다. 강우정 김명용 유석성 김재연 총장 등 총장 4명으로 구성된 총장총장단이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임어'를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송용필 햇빛트리나티신학대학원대 부총장은 "한국교회가 본질을 잃고 빛과 소금의 기능을 못하고 있

다"면서 "교회에 헌신자들을 불러 주셔서 새롭게 부흥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신민규 나사렛대 총장은 "우리나라 많은 학교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다. 우여곡절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새 사명 주실 줄 믿는다"고 기도했다.

대학총장 조찬기도회는 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기 위해 기도를 모으자는 취지로 2003년

제12회 홀리 스피리츠맨 메달리온 수상자 확정

목회자 원팔연, 부흥사 유중현, 교육자 고세진, 사회봉사 이은대 목사

성령역사를 실천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받는 '홀리 스피리츠 맨 메달리온' 수상자가 목회자, 부흥사, 교육자, 사회봉사 4개 부문에서 선정됐다.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대표회장 정인찬 목사) 홀리 스피리츠맨 메달리온(이사장 안준배 목사) 심사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창립 26주년을 기념해 제12

회 홀리스�피리츠맨 메달리온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수상자는 목회자부문 원팔연 목사(전주바울교회 당회장), 부흥사부문 유중현 목사(성원교회 당회장), 교육자부문 고세진 목사(아신대 전총장, 근동 고고학자), 사회봉사부문 이은대 목사(사단법인 사랑나눔, 충주그리스도의교회 당회장)다.

1월 시작됐다. 다음 기도는 5월 말 경기도 광주 서울장신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모임 회장 김명용 장신대 총장은 인사말에서 "기도가 역사를 바꾼다"며 "대학총장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대학의 당면과제들도 하나님이 잘 해결해주시길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시, 김상호 교수에 개명 불가 통보

서명운동 벌여 봉은사역 개명 청원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명 개정을 요청한 김상호(75) 한양대 연구교수에게 역명개정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불교 신도인 김 교수는 국제화시대에 봉은사역명이 맞지 않자며 지난해 주민 서명을 받아 '삼성코엑스역'으로 개정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김 교수에게 최근 보낸 답변서에서 "서울시지명위원회는 심도 있는 심의 결과 봉은사로 역명을 결정해 지난해 12월 확정·고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명의 변경은 '지하철 역명 제·개정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역명으로 사용되던 목적물의 소멸 등 개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엄격히 제한해 허용하고 있다"면서 "봉은사역을 개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 추진

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일보가 입수한 '2014년 제1차 서울시 지명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르면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지명위원회는 봉은사역명과 관련된 회의를 지난해 4월 9일 한 차례만 개최했으며, 회의시간도 턱없이 부족했다. 당시 지명위원들은 2시간 동안 역명 산명 공원명 등 총 14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1건당 회의시간은 평균 8분30초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시가 역명 개정 불가의 근거로 제시한 지하철 역명 제·개정 절차 및 기준에는 '향후 분쟁 또는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특정단체 및 업체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명칭'은 배제라고 돼 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3월 월례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8월 페루 선교지 방문 · 회계보고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3월 월례모임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전희수 목사)가 26일 3월 월례모임을 가졌다. 이날 주요 안건은 오는 8월 17일(월)부터 22일(토)까지 페루 선교지 방문에 관한 것과 1/4분기 회계 보고 시간을 가졌다.

장, 설교 박진하 고문, 합심기도 인도 김진숙 봉사국장, 축도 김승인을 가졌다. 이날 주요 안건은 오는 8월 17일(월)부터 22일(토)까지 페루 선교지 방문에 관한 것과 1/4분기 회계 보고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배고픔을 달랜 군중들이 그 이후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불만이 많고 방황했다. 근본적 필요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것은 첫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며 둘째, 영생을 얻는 것이다. 기아대책 사역은 단순히 빵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한 영혼에 대한 값진 관심으로 인생의 마지막 끝을 잘 맺자"고 역설했다.

합심기도는 △사순절 △미동부 국제기아대책기구 임원단 △결연 아동 △플롬비아 김혜정 선교사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으며 우병만 목사(교회일보 대표), 박미례 목사, 황동의 목사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추가 기도했다.

2부 회의는 전희수 회장의 인도로 개회기도 후 사무총장의 업무보고와 권캐더린 목사의 회계보고로 이어졌다. 김영환 사무총장은 아동후원 배가운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회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동 기구는 2월 신규아동결연

15명으로 총 110명(해외 106명, 북한 4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아동후원은 지난 12월부터 3월 25일까지 수입 8,610달러, 지출 6,380달러로 3,755.01달러가 남았다. 또 일반회계는 총수입 6,720.57달러, 총지출 2,474.32달러 총잔액 4,246.25달러로 보고했다.

이찬양 간사는 이번 페루방문 지역은 아마우파 마을이며 리마와 쿠스코 등도 일정에 포함된다 고 설명했다. 또 일반회계는 총수입 12명 선착순으로 마감하며, 4월 말까지 항공티켓을 예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간사는 이번 방문 중 사랑의 집짓기(1가구 1,500달러)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4월 월례회는 23일(목) 오전 10시30분 늘기교회(담임 김홍서 목사)에서 열린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의 자세한 정보는 www.eafh.org에서 볼 수 있다.

(유원정 기자)

시(詩)로 읽는 성경(聖經)

- 모세오경



시(詩)로 읽는 성경(聖經) - 모세오경

민음의 사람 아브라함(아브람, Abraham) (창세기 12: 1-24: 67)

야훼 아브람 부르사 자란 고향 하란 떠나라 하시니 큰 민족 이름 약속이요 민음의 조상 훈연이구나

"가나안 땅 주시마" 야훼 언약 그 은혜 크시도다 단(壇) 쌓고 야훼 이름 부르니 약속의 땅 일세

아브람 아리따운 아내 사래 애급 왕 바로에게 빼앗기니 이민생활 고달파라 눈을 뒤어주시고 그녀와 은금까지 챙겨주시니 야훼 손길 크시네 조카 롯과 땅 가르기 후대에 "아브람의 교훈" 되도다

소돔 살던 조카 롯 포로소식 듣고서 아브람 집에서 기른 삼백십팔 명 사개국 연합군 물리치니 민대에 기릴 승리일세 여호와 의 넋

아들 없어 애타는 아브람 여종 하갈에게 이스마엘 낳으니 그의 나이 팔십육세라 아브람 나이 구십구세 사라 나이 팔십구세에 야훼 이름 바꿔주시니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요, 열국의 어머니 사라" 라

롯의 처소 소돔성 죄로 물들어 불심판 예고하니 아브라함 었디어 의인 십인이면 어찌 하오리까 빌었으니 구하는 자의 표상 일세

소돔성 하늘에서 유황불 쏟아지니 육체로 사는 자들 종말의 표요 불심판 피한 두 딸과 롯 육체 따라 한 몸 되어 자녀 낳으니 세상의 수처라

때 되어 아브라함 약속 아들 주시니 그의 나이 백세요 사라 구십이라 그 이름 이삭 어린 아들 자라 아비 어머니 위로 일세

어느 한 날 야훼 아브라함 부르사 "아들 번제로 바치라" 하시니 자식 죽이는 아비 심정 먹구름 하늘 누가 알랴 모리아산 사울길 순종으로 올라가 아들 죽이려 올린 손!

야훼 붙잡으사 떨리는 음성으로 말리시니 그의 믿음 크도다 만복의 아비 민음의 아비 되는 순간 일세

사라 죽어 막벨라굴에 잠들고 아브라함 아들 이삭에게 자부 얻게 한 후 그의 길 백칠십오세 향수하니 그 믿음 장하여라 민대에 빛나리 할렐루야

(7면에서 계속)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인격개발 세미나, 내적치유 세미나, 성인어아 치유세미나 등 참석). 이때 유의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자아가 발달되어 오는데 20년 이상이 걸렸다는 것과 우리의 성격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한 번 밖에 못사는 인생을 위해 나와 배우자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나의 꿈은 무엇이며 배우자의 소원은 무엇인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 결혼할 준비가 무리의 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현실은 금전적인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년기에는 결혼준

비를 위한 자금을 모아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만 맡겨두고 무심경하게 지내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친구들이나 인터넷 관련 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정보들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혼할 당사자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마음대로 준비되었다면 결혼은 더 이상 늦출 필요가 없습니다. 재정의 부족 때문에 마냥 결혼을 미루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설계요 또한 인간 세상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초이자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이 결혼은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엄숙한 사명임을 다시 한번 새겨보았으면 합니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선교 편지

아르헨티나

사랑하는 선교의 동역자님들께!

먼저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드리며,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부족한 저희 가정이 한국 방문(2015년 1월 14일-2월09일)을 하면서 파송교회인 내일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

부를 하고 있으며, 어떤 목회자 부부는 "졸업하지 않고 영원히 재수생(?)으로 남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과 목회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지만, 그들의 상황 속에서 배우는 기회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997년부터 시작한 "나사렛 예수의 집" 보육원 협력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역기능 가정에서 폭행을 당하는 어린이들이 약 40명 보호와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5년 이상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1년 혹은 2년 안에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도 합니

지난 일년간 진행해 오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2014년 6월에 1년 코스를 다 마치고, 7월에는 2학년 개강식과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입학한 약35명의 참석자들이 2014년 하반기 4개월 동안 출애굽기, 골로새서, 느헤미야 그리고 마가복음을 차례로 공부하였습니다.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못했던 교회지도자들이,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참석하여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저희가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목회자와 함께 건강한 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지역 사회에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 1) 아르헨티나의 1-2월 휴가 기간을 지내고, 3월부터 시작하는 모든 선교활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현지인 목회자와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역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여호수아 강의 번역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번역된 강의안이 큰 어려움 없이 출간되어 현지인 사역에 도움이 되도록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3) 2014년 11월부터 2년 동안 GMS(총회 해외선교회) 중남미 지역 대표라는 직책을 잘 감당하여 중남미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약 82가정의 GMS선교사님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4) 디나목회신학원에서 목회와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120여 아르헨티나 현지인 목회자들은 저희들의 신실한 선교동역자들입니다. 건강한 목회를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박성흠-정명희 선교사
E-mail: carlospark@gmail.com

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진작 소식을 전해야 했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소식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중점 사역인 디나목회신학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년동안 잘 진행해왔습니다. 중남미의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85% 이상의 현지인 목회자들이 정규신학 공부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남다른 열정이 있는 분들이나. 그들의 약한 부분을 디나목회신학원이 돕고 협력하여 그들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선교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120여 목회자 부부가 저희 신학원에서 공

다. 정부 기관인 가정법원에서 관여하는 일이라 보육원에서는 독자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고 정부의 보호와 법을 따라야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참 모습은 목회자의 건강함이 첫째이지만, 목회자의 건강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디나목회신학원에서 공부하신 목회자들이 요청하여 시작된 지도자반 성경대학 프로그램이 2013년 7월에 입학식을 갖고 8월에 첫 수업을 시작하여 매월 한 번씩 집중 세미나로 진행해 왔습니다. 100km 떨어진 지역에서 3교회가 연합하여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Texas, North Carolina, Virginia, etc.



이슬람권을 위한 목요기도운동

요3:16, 17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 이슬람권의 성도들, 선교사들,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

(요4:35) "너희는 너희가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도저히 찾아가 수 없는 이슬람 무장단체 IS 대원을 위해 죽음의 문턱에서 배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인해 감사합니다. 회심한 지하드대원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고 구비되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며, IS 대원들 가운데 구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소서!

-IS에 납치되어 생명의 위협과 압박을 받으면서도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리아 기독교인들의 소식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직도 인질로 붙잡혀 있는 많은 시리아와 이라크 성도들의 영적, 육적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속히 자유의 몸이 되게 하소서.

-기독교 신앙 때문에 매인바 된 이란의 사예드 아베디니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들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이란 사람들과 온 세

상이 보게 하소서!

-이슬람권 교회와 성도들이 죄와 사랑과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세상보다 크신 통치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하소서!

-요르단과 레바논, 터키 등에서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추수 때가 지나가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주소서.

-선교사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슬람권 선교로의 부름을 능히 감당할 용기와 힘을 주소서.

-어둠의 세력이 점령하고 있는 땅에서 T국 기도의 집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선포하고, 빛과 진리와 생명을 흘려보내는 샘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2. 무슬림들, 이슬람지도자들, 국가들을 위해

(겔18:23) "주 여호와와 말씀이 아니라 내가 여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라 그가 돌아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여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IS를 환영하던 수니파 무슬림들까지 이제는 그 공포정치에 환멸을 느끼며 탈출하고, 4년이나 내전이 지속되는 시리아인의 삶은 극심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와 이슬람에 대한 반감으로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길



을 열어 주소서!

-IS를 환영하던 수니파 무슬림들이 이제는 환멸을 느끼며 탈출하고, 4년이나 내전을 겪는 시리아인의 삶은 극심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이슬람에 대한 반감으로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길을 열어 주소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연속적인 인질 살해에 이제는 어린 아이들까지 동원하고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등 잔혹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저들의 양심이 살아나고 만행을 그치게 하여 주소서! 배후에 역사하는 살인과 어둠의 세력이 묶이게 하소서!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이슬람 교육과 이슬람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자라는 무슬림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땅에 풀이 풀리지 않게 하시고, 눈에 비늘이 벗겨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소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죄악 중에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극단주의 이슬람무장단체의 최고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소서!

IS(이슬람국가, 전 ISIL)의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 나이저리아 보코하람의 아부바카르 세카우, 알카에다의 아이만 알자와히리, 탈레반의 물라 무함마드 오마르, 하마스의 칼리드 마샤알이 변화되게 하소서

-이집트와 앗수르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세계 중에 복이 되게 하소서! 17억 무슬림들이 마지막 날 보좌 앞에 찬양하는 큰 무리 중에 들게 하소서!

3. 이슬람과 저지와 중보기도운동 위해

(사49:6)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아랍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

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4개국 순방을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많은 경제적인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슬람권 선교의 문이 더 크게 열리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위정자들이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제일 순위로 두는 나머지 이슬람의 속성을 간과하고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 일들을 진행하지 않도록 막아 주소서. 눈앞의 이익이나 자신의 인기를 위해 국가와 후손들의 미래를 담보삼지 않게 하소서.

-최근 공영방송과 신문 등 언론매체에서 이슬람에 대해 잘못된 보도로 국민을 오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이 진실을 알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2015년 각 교단과 선교단체에서 열리는 이슬람권 선교학교를 축복해 주셔서 이슬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무슬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도와 선교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소서.

-젊은이들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이슬람 급진사상에 미혹되어 악한 도구로 쓰임 받지 않게 하소서. 인터넷과 SNS를 통해 테러를 조장, 선동하고 무장대원을 모집하려는 모든 미혹과 계획이 묶이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슬람을 분별하고 막아설 뿐만 아니라, 이슬람권 선교와 기도를 힘있게 감당하게 하소서.

<http://cafe.daum.net/loveu316>

십자말 • Cross Word (75)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가로 푸는 열쇠>

-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 한 무덤 같으니...(마23:27).
- 자세히 살피어 눈을 씻어 봄(창24:21).
- 임금이 정복을 갖추는 관(삼하1:10).
- 소아시아 루가오니아도의 수부(행14:21).
- 깔고 앉는 네모난 작은 자리(잠31:22).
- 스스로의 생각(골2:23).
- 자로 전 수(왕상6:25).
- 갈릴리바다에서 사해를 지나 홍해 동북의 아가바만에 이르는 함물지대(수18:18).
- 신을 숭배하고 신앙하여, 이로 인하여 선악을 권계하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일(행25:19).
- 빨지 아니한 베. 생포(마9:16).
- 바삭 죄어서 몹시 괴롭게 구는 사람(딤후1:13).
- 골리앗이 다윗에 의해 쓰러지자 그 군대가 도망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까지 쫓아갔다(삼상17:52).
- 먼저 본 사람. 선지자(삼상9:9).
- 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왕상9:27).
- 집안의 모든 세간(창31:37).
- 하나님의 아들(대상3:21).
- 공수(空手)(룻3:17).

31. 상서로운 빛(사21:4).

<세로 푸는 열쇠>

- 열대지방에서 나는 빛이 변하는 도마뱀(레11:30).
- 일을 맡아 주장하여 관리하는 사람(시68:27).
- 국가의 금고(대하8:15).
- 고요하고 안온함(왕하11:20).
-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는 불가사의한 일(출3:20).
- 요단강 동편에 있던 한 지방(민32:3).
- 별 고치는 일을 하는 사람. 닥터(창50:2).
- 시중드는 사람(출33:11).
- 유다의 산골에 있는 성읍(수15:53).
- 마차나 수레가 굴러가게 하는데 필요한 동근 모양(명).
- 곤궁하고 가난함(신15:9).
- 박사 중의 우두머리(렘39:3).
- 사물을 보고 가지는 바의 의견이나 생각(신12:8).
- 구약의 선지자가 쓴 예언서. 23번째 책.
- 남에게 선사로 주는 물건(창30:20).
- 아들과 손자(출34:7).
- 바치는 물건을 달갑게 받아들임(말1:8).
- 교회의 봉사 직분의 하나(행21:8).

십자말 정답

빛	기	판	인	아	관
안	수	부	관	소	도
수	판	조	애	수	부
베	관	티	조	판	가
판	관	수	수	의	판
가	요	조	안	조	의
수	기	부	아	티	니
조	우	이	판	로	판
판	아	부	부	로	판

P.I.O.N.E.E.R P.I.L.G.R.I.M T.O.U.R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대표전화 714-351-0124

품위있는 성지순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와 함께 하시면 순례가 은혜스럽습니다.

여행상품 · 일정

터키/요르단/이스라엘 -12일 \$3700 *출발일: 4월4일, 18일/5월2일/9월19일/10월3일, 17일/10월31일	터키/그리스/이스라엘 -12일 \$3800 *출발일: 4월19일/5월17일/6월21일/7월26일/9월13일/10월11일
터키/그리스/이태리 -12일(13일) \$3500 *출발일: 4월5일, 11일, 25일/5월3일, 9일/5월31일/7월26일/9월20일, 27일/10월10일, 11일, 25일(13일)/11월7일, 28일	요르단/이스라엘 -9일 \$3200 *출발일: 4월6일, 20일/5월4일, 18일/6월1일/9월28일/10월12일, 26일
터키/그리스 -10일 \$2800 *출발일: 4월5일, 19일/5월3일/9월20일/10월4일, 18일/11월1일	이태리(요르단)/이스라엘 -9/11일 \$4200 *출발일: 4월13일, 27일/5월11일/7월24일/9월14일/10월5일
터키/이스라엘 -10일 \$3200 *출발일: 4월12일, 26일/5월10일/9월11일, 25일/11월8일, 29일	체코/독일/스위스/프랑스 -10일 \$4000 *출발일: 4월13일/6월14일/9월20일/10월18일
터키/밤모/그리스 -11일 \$3300 *출발일: 4월26일/5월24일/6월28일	체코/독일/스위스/이태리 -10일 \$4000 *출발일: 5월10일/8월9일

※ 유류할증료, 항공세 포함
※ 비자피, 출입국세, 현지가이드팁, 공동경비, 개인경비는 별도
※ 여행차 보험은 옵션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세요!
714-351-0124 성지전문 15년의 경력
최치 목사
함께 하면 은혜스러운 순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PIONEER PILGRIM TOUR

새로운 성지순례의 지평은 언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 주소: 17510 Pioneer Blvd, #210 Artesia, CA 90701
* E-mail: choigh1115@gmail.com, choigh1115@hanmail.net * 파이오니아 사무실번호: 562-403-3360, 3363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O TPKE, FLORAL PARK, NY 11001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3rd Street, 4th Street, 5th Street, Olympic Blvd.

김스전기, 한남제인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터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82)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Back to Basics) (5)

느헤미야서는 페르시아 왕 아다사스다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재가를 받아 이스라엘로 돌아와 그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봉헌한 일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에 의해 강요되고 이로써 백성들의 회개가 이루어졌으며 언약의 회복 및 느헤미야의 개혁까지 일구어 줬던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 느헤미야 8장은 이 전체 느헤미야서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장은 성벽재건축과 귀환 포로의 정착 이후,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강독한 이야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지점은 느헤미야 8장에 나타난 이러한 일련의 교육 관련 내용들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은 모든 교육적 열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기독교 교육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느헤미야 8장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기독교 교육의 기초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일이 없었다면, 그 이후의 백성들의 경배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둘째로는, 우리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설명해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전체에서,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이 설명해 주었다는 부분은 (느 8:7-8), 현대적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바 가장 "교육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아듣도록", 즉 인지적으로 정확히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는 지점입니다.

원래 이 구절은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통역을 해주었다는 의미를 내



정신애 박사 (사카고 트리니티교회 교사)

느헤미야 8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기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르치며 정확한 인지적 이해 도와야

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그 후 9장에 기록된 대로 대대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역사를 이끌어내었던 매우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강독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깨우치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또한 언약을 회복하게 되었음이 9장 이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설명과 가르침, 삶 속에서 그의 실천, 그리고 백성들의 눈물과 회심 모두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러시아말로 러시아 법전을 읽어준다면 우리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들이 양쪽 언어와 율법에 통달했던 것과 같이, 누군가 러시아말로 한 국말로 통달했고 러시아어도 잘 아는 사람이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 8장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기초는 매우 강력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 한인교회에게 의미 있는 교육적 기초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반드시 견지해야 할 그러한 교육적 기초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이야기에서 말씀의 적용과 실천, 그리고 순종을 촉구하는 교육의 중요성, 말씀 중심의 교육의 목표로서의 회심, 그리고 말씀 중심의 교육을 통한 예배의 회복 등 중요한 교육적 함의들을 생각할 수 있으나, 오늘날을 사는 우리의 기독교 교육을 위한 두 가지 함의들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의 피교육자들을 향해 말씀교육에 있어서의 영적인 통역사의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오역은 반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되 자의적이거나 성의 없이 대응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고 전달해야만 함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8장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8:3), 설명되어지고(8:7-8), 말씀의 실천이 촉구되어졌으며(8:14-17), 이는 경배와 찬양(8:6), 그리고 회개의 삶으로(9:1-3) 이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도 사실은 완성도 높은 기독교 교육의 핵심사항들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설명하고 적용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말씀 교육의 패턴과, 이를 통해 회심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교육의 목표들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당시에는 그것이 율법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현대적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전체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교육의 출발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다 많이, 보다 자주, 접하도록, 자녀들과 성인 것들을 돕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상황적인 해석이 추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 피교육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우리의 교육 현장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읽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설교나 성경공부나 이미 한번 요런 말씀을 듣는 일이니까요. 이에 사역자들은 자녀들 혹은 성인 성도들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읽는 기회를 보다 세심하게 교육의 내용으로 기획

너무 당연해서, 너무 잘 아니까 오히려 중시하지 않고 있어버리는 것이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교육의 그야말로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행하는 것이 또한 기독교 교육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교육은 이 기초를 기억하고 이 기초 위에서 행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길을 잃었다면 가장 처음으로 되돌아가고, 어떤 일에 든 방향을 잃었다면 최초의 질문을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혹시 우리의 교육이 산만하고 지향미 모호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계속)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월 여호와와 말씀이 희귀하여!(삼상3:1-2)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늘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비교해주시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강건해지도록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과정에서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두운 속에서 말씀이 떠나고 사무엘에게는 말씀이 임해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비교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문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나

이가 들어서 육신의 눈도 어두웠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성도에 게 제일 고민이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생명을 잃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따를 때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심령에 들리는지요?

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삼상3:1-10)

주의 종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 누구와 싸워도 주의 종은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권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축복하는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자신대대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 어두우면 안됩니다.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말씀이 들려서 가슴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와의 전안에 있었습니까. 이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라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수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삼상3:10-21)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겠다는 뜻은 철저한 겸손함과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겸손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즉시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과의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말씀을 받

은 대로 조금도 숨기지 않고 전함으로써(18절)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전파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삼상4:1-3)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하고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몰락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21절에 "이거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곧 멸망과 실패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이 잘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시대였는데 실제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장악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늘 깨닫고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지도자들부터 빨리 깨닫고 돌아와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금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사천 명 가량이라!(삼상4:2-4)

이스라엘 백성들이 4천명이 죽었습니다. 왜 졌을까? 하루빨리 그 원인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회개하는 길 외에는 없었습니다. 회개는 잘못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반성하는 것도 아니요 앞서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잘못된 곳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 올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잘못을 덮어주시고 용서해주고 해결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왜 전쟁에서 졌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재앙을 만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있지 않으면 항상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작전회의를 끝내고 힘을 내어 전쟁에 나가 3천명이 더 죽었습니다. 빨리 잘못된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해야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삼상4:3-11)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앞에 패하게 하셨는지?"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패할 이유가 없는데 왜 패했는지? 하는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 교만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로는 자신들의 잘못은 뉘우치지 못하고 근근히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분

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회회하더니 내린 결정이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구원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배례를 부치고 같이 취급했습니다. 결국 법궤도 빼앗기고 3만명이 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www.kumnan.org Tel. (82)12-490-7000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Tel. (031)877-3389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Tel. 39-06-827-3585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장석 대표전화 (031)896-1000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www.seongsil.or.kr Tel. (82)12-2648-3191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www.seongsil.or.kr Tel. (82)12-2648-3191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경곤 Tel. (82)12-2643-8553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Tel. (82)132-568-0191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Tel. (02)732-2341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걸 Tel. (031)253-1004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Tel. (82)12-842-1968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걸 Tel. (02)418-0481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Tel. (82)12-786-6579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Tel. (82)12-2643-8553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Tel. (055)210-5500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Tel. (82)12-888-4813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Tel. (02)942-6881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Tel. (82)12-527-1009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Tel. (82)12-482-3536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Tel. (043)275-9191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Tel. (82)12-793-7740

인/터/뷰

제 1회 찬양대원을 찾아가는 '지역 열린 세미나' 준비하는 전현미 선생 "이민교회 찬양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길"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민교회 찬양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는 4월 12일 오후 5시 성화장로교회(담임 강영석 목사,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에서 열리는 제 1회 찬양대원을 찾아가는 '지역 열린 세미나'를 준비하는 전현미 선생. 그는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게 된 것은 각 교회 찬양대와 찬양대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찬양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예배사역자들을 레위지파와 같은 위치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한축을 담당하는 찬양대의 중요성도 매우 지대하거든요." 그는 찬양대원들



기쁨을 찾아보기 어려운 마치 억지로 찬양을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하며, 심지어는 지휘자를 짜러보며(?) 찬양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게 다가왔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은 찬양대원들이 자신의 직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라는 생각을

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세미나 강사로 나와 달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찬양세미나를 하는 교회를 찾아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사정상 세미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전 선생은 찬양대에 대한 안타

세 파트 강의: △찬양대 직분의 영적자세 △효과적인 찬양연습 △복식호흡

은 모습부터가 예배자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강조하는 말 속에는 찬양대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스며들어있음을 느끼게 했다.

"각 교회 찬양대원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아주 은혜스러운 찬양대가 있는 반면, 찬양을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단지 기계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뭐랄까 영혼 없는 노래라고 해야 할까요?"

그의 쓴 소리 안에는 찬양대원들의 예배인도자로 모습이 담겨져 있어야 함이 들어있었다. 전 선생은 찬양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일하게 기쁨의 찬양을 울려드려야 하는데, 막상 노래실력은 뛰어난지 몰라도 무표정한 모습,

해봅시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찬양대는 예배인도자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결여돼 있어서 아쉬운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세미나는 △찬양대 직분의 영적자세 △효과적인 찬양연습 △복식호흡의 파트로 나눠 진행된다. 그가 세미나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모 교회 찬양대원과 대화가 발단이 됐다고 한다. 어느 날 어떤 모임에서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내용이 너무 좋으면서 자신의 교회에서 찬양대 대상의 세미나를 열고 할 테니 강사로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면서라고 말했다.

"저는 그저 그동안 배운 것과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것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신 주님께서 그가 가진 달란트를 많은 찬양대원들과 함께 나누고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찬양대원들이 각자 교회로 돌아가서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잘 감당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전현미 선생은 세미나를 통해 각자가 작은 불씨들이 돼서 본 교회에 큰 불을 일으키며 예배가 다시 살아남으로 남가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성령의 불이 다시 일어나길 간절히 마음으로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다며 각 교회 찬양대원들과 찬양사역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310)381-9835 (박준호 기자)

(9면에서 계속)

그런데 우리 목사들이 부끄러워 피하고 싶어 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3. 우리는 새 힘을 얻으려 하면서도 고독해지려 한다.

내 아내는 최근 목사들의 정신건강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마쳤다. 아내는 논문을 위해 연구를 하다가 목사들이 일반인들보다도 더 내성적 성향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해가 간다. 많은 목사들이 설교를 위해 연구하고 준비해야하므로 그런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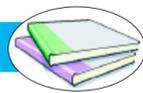
향은 직업적 특성이다. 내성적인 사람들은 새롭게 힘을 얻고 싶을 때, 고독한 시간을 찾아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고립을 강화시킬 뿐이다.

목사들의 영적 훈련을 위해 가장 많이 권고되는 방법들-성경읽기, 기도, 묵상, 침묵-은 목사들로 하여금 사람들과 접촉하게 하기보다는 다소 떨어져 있게 만든다. 물론 이런 것들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친목, 고백,

축하, 예배 등과 같은 공동체 참여적인 훈련 방법들에 의해 조절되지 않으면, 위험스런 성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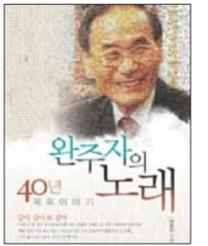
건강한 고독과 건강하지 못한 고립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다. 내가 아는 많은 목사들은 이미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면서도 더 많은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마치 거식증 환자에게 다이어트를 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세 책 소개



"완주자의 노래-40년 묵회 이야기"

저자 박종순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의 대표적 원로목회자의 한명인 박종순 목사(충신교회 원로)가 지난해 말 자신의 묵회 40년 이야기를 담은 "완주자의 노래"를 출간했다.

총각 전도사로 1957년 전라북도 울소리교회를 개척한 것으로부터 시작해 전도사로 섬겼던 충신교회에 담임목사로 돌아와 은

1부 부르심에 대해 박 목사는 "목사도 사람이다"라는 인간선언! 베드로의 말대로 동일한 성정을 가진 인간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부르심과 응답의 관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관을 통과하지 않고 결문으로 들어섰다면 되돌아가 정문을 통과해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기하고 응답자

리게 된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중심을 잃고 이랬다 저랬다, 이말 했다 저말 했다 한다든지, 이 사람 말 듣고 오른쪽으로 가다가 저 사람 말 듣고 왼쪽으로 간다든지 한다면 목회자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목회자가 모든 면에서 균형을 가질 것을 조언했다.

4부 묵회서신에서는 "동역자

원로목회자의 40년 묵회...한국 교회와 목회자가 꼭 들어야 할 이야기

되고 원로로 섬기기까지 그의 묵회 40년 간 감당했던 일들을 이야기로, 때론 훈계로, 때론 성경에 입각한 신앙적 신학적 논리로 풀어내었다.

충신교회 전도사 시절 만난 아내와 결혼 당시의 가난, 그것이 목회자들에게는 훈련이라며, 대부분 가난에서 시작한 목회생활이 교회가 부흥되고 경제적 풍요가 오게 되는 순간이 목회자에게 함정이고 건너야 할 계곡이라는 박 목사의 말은 이 시대 목회자들이 꼭 새겨야 할 말이다.

또 "묵회는 정년이 있지만 사역엔 은퇴가 없다"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다시 일어서는 한국 교회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적고 있다.

책은 1부 부르심, 2부 정도(正導) 묵회, 3부 균형(均衡) 묵회, 4부 묵회 서신으로 나눠 각 부마다 6개, 11개, 9개, 10개의 이야기를 실고 있다.

의 낮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리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정도묵회에 대해서는 "목회란 머리 굴러 되는 게 아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두른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묵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옳고 바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탁으로 시행되는 모든 묵회 행위는 정도라야 한다. 기발한 아이디어, 뛰어난 창의력, 특목 특수는 이벤트, 이런 것들이 묵회를 재미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정도가 아니면 오래 못 간다"고 설명했다.

3부 균형묵회에 대해서는 "균형을 잃으면 교회도 묵회도 흔들린다. 묵회는 종합예술이고 오케스트라 같아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다룰 수 없다. 균형묵회는 목회자가 어느 정도 균형 감각을 갖느냐로 결정된다. 목회자가 자신이 균형을 잃고 흔들리면, 균형묵회는 물론 삶 자체도 흔들

들에게 권하고픈 말이 있다. 그것은 묵회에 마침표를 찍는 날 완주자의 노래를 부르자는 것이다. 묵회뿐이겠는가? 인생도 그렇다. 언젠가 우리는 인생 삶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그때가 언제인가는 보내시고 부르시는 주님만 아신다. 지금 누리는 그 자리, 머무는 그 곳, 움켜쥔 것들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다. 목사는 교인들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설교한다. 그러나 목사에게 욕심을 버리라, 내려놓으라, 낮추라고 설교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라며 묵회 완주자로서의 자세를 전했다.

본지 "원로칼럼"의 필자인 박종순 목사는 "깨끗한 가난", "축복언어", "신앙생활 119" 등 다수의 단행본과 "예수는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나?"의 편저, "수요의 신비" 등의 역서, "굿모닝 크리스천" 등의 공저가 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등의 설교집 시리즈가 29권까지 발행됐다. (유원정 기자)

(4면에서 계속)

그래서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부활 신앙이 없으면 교인도 아니다. 부활을 못 믿는 교인은 아직 구원받은 성도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요11: 25-26).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순교까지 하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오늘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의 산 소망(벤전

1:3)이 되신 부활의 주님께 경배 드리지.

여자들이 미장원에 가서 미용할 때 3단계 원리가 있다. 제일 처음에 가면 얼굴을 거울에 비춰준다. 그 다음에 세수를 한다. 그 다음에 머리를 손질하고, 마사지를 한다. 교회는 신령한 미장원과 같다. 일주일 동안 머리가 흩어지고 온갖 더러워진 성도들을 교회에 모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보면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과 더러움을 본다.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밖에 없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기름을 부어 아름답게 단장해준다. 왜 그렇게 해주시는가? 우리의 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될 때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단장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구름타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성도들은 흠 없고 점도 없는 아름답고 깨끗한 주님의 신부로 설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재림과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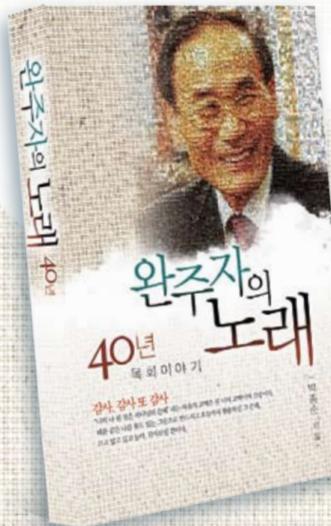
목회자와 신학생들의 필독서!!

충신교회 원로목사인 박종순 목사의 40년 묵회 이야기를 엮은 책으로, 목회자의 길을 먼저 걸은 선배 목회자로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건네는 격려와 조언을 담았다.



완주자의 노래

박종순 지음



목회는 세상 논리를 따라 일정한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 목 그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때와 장소, 감정과 상황을 따라 변하는 사람들을 대하려면 인내와 지구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저자는 '묵회는 마라톤이다'라고 정의내린다. 중도 포기나 탈락 없이 완주자가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단판승부보다는 완주 묵회가 중요함을 후배 목회자들에게 당부한다.

■ 저자/박종순

동부이촌동의 충신교회 원로목사로서, 사단법인 한지터 이사장 겸 대표, 한중기독교교류협회 대표회장, 한국세션교회협의회(KWMA) 이사장, 송실대학교와 송실사이버대학교 이사장, C채널 TV방송 회장을 맡고 있다.

함께 읽을 만한 박종순 목사의 또다른 저서

하나님의 사람들

344면 / 12,000원 / 신국판 양장

충신교회의 원로목사인 박종순 목사의 29번째 설교집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제목은 본서를 대하는 모든 독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심부름하자는 저자의 바람이 스며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한 다양한 말씀을 전해 주며, 부활절, 사순절을 비롯한 여러 특수 설교도 함께 모았다.

축복언어

272면 / 10,000원 / 사륙판 양장

사람은 한마디 말과 한 줄 글 때문에 깨달음을 얻고 삶을 정돈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 틈틈이 쓰고 모았던 글들을 책으로 묶어 펴내기로 하고 책명은 "축복언어"로 정했다. 그렇기에 책을 읽는 독자는 복된 깨달음을 얻고 삶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